다문화와 생활세계에서의 가치변동

일시: 2015년 12월 18일(금) 13:30 ~ 17: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취창업관 406호
주최: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주관: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후원: 한국연구재단
Program

13:30 ~ 14:00 등록

14:00 ~ 14:20 개회식
사회: 김태원(대구가톨릭대학교)
개회사: 이장욱(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원장)
환영상: 이기영(부산대학교)

14:20 ~ 15:50 I 세션▷로컬리티와 생활세계
사회: 신창식(대구가톨릭대학교)
1.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아카이브 (신난희/대구가톨릭대학교)
토론: 선봉규(전남대학교)
2. 다문화사회에서 한국 종교지형의 변화에 대한 연구 (박종수/대구가톨릭대학교)
토론: 이혜진(부산대학교)
3.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김태완/조윤용/부산대학교)
토론: 임영연(전남대학교)

15:50 ~ 16:00 휴식

1612 II 세션▷다문화 공간에서의 언어와 정체성
사회: 김태원(대구가톨릭대학교)
1. 다문화사회와 언어 (이재승/부산대학교)
토론: 이수미(대구가톨릭대학교)
2. 소련에서 광주 한글학교 설립에 관한 연구 (지충남·양명호/전남대학교)
토론: 이연옥(부산대학교)
3.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 조사 연구 (김혜련/전남대학교)
토론: 최대희(대구가톨릭대학교)
목 차

I 세션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아카이브” .................. 신난희 / 3
“다문화사회에서 한국 종교지형의 변화에 대한 연구” … 박종수 / 17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 김태완 · 조윤용 / 29

II 세션

“다문화사회와 언어” ............................................................................ 이재승 / 39
“소련에서 광주 한글학교 설립에 관한 연구”
...................................................................................................................... 지충남 · 양명호 / 51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 조사 연구” .................. 김혜련 / 73
Ⅰ 세션 
로컬리티와 생활세계

1.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아카이브 (신난희/대구가톨릭대학교)
2. 다문화사회에서 한국 종교지형의 변화에 대한 연구 (박종수/대구가톨릭대학교)
3.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김태완·조윤용/부산대학교)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아카이브

신난희(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I. 다문화 아카이브 논의의 출발

본 발표문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중점과제 2단계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인 '다문화 아카이브의 구축' 수행을 위한 시론적 성격을 갖는다. 필자는 본 발표문을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다문화와 관련된 사고와 인식에 있어서 하나의 전향적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문화 관련 논의가 르네상스시기부터 시작하여 수백 년 동안 발전되어온 세속화된 지식세계의 정점에서 출현하였다면, 필자는 다시금 인간의 유목성이 '상수화'되는 상황에서 거꾸로 그 유목성을 흐리내시킨 불안정의 내동 동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불안정성을 어떻게 안정화로 향하게 할 수 있는가이다.

현대사회에서 이주는 경제적 동인이 강하다고 할 때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가 인간 내면에 일으키는 심리적, 영적 파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문화에 구속된다고 할 때 인간은 자율적 활동을 통하여 문화의 구속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적 세계를 만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자율적 활동은 이주의 전 과정 속에서도 상대적 안정화, 정주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본 발표문은 이주민의 생활세계가 이주민의 이주과정에서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보고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아카이브'의 구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 아카이브는 이주민이 이주 과정을 통해 제거, 대체, 변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내면에 담고 생활하는 '모국과 이주자의 경험과 기억'을 현 이주자의 공적 공간에 거네어 놓으므로 여전히 이주민 개인의 생활세계를 내적으로 제약하는 경험과 기억의 구속성을 넘어 자율성을 향유할 하나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과 기억의 향유 작업은 일차적으로 이주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폄하된 이주민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풀어놓는 '축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경험과 기억에 고착된 본질적 구속성을 이주민 스스로 인식하고 성찰하여 자신을 역암하고 구속하는 문화 기억의 과래에서 벗어나 이주지 현실에 근거한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문화 아카이브의 모색은 이주민의 삶이 기본적으로 '독이 든 짐' 즉 이주지 문화에 구속
되면서도 길들여져가는, 비참하면서도 달콤한 모순적 맥락을 갖는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이주지 문화 적응의 모순성은 태어나고 자랐던 모국, 고향을 떠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주민에게서 대단히 강렬하고 파행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다문화 아카이브는 이러한 이주지 문화적 모순성이 주는 구속과 부자유, 불안정한 정착과 불안정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여유로운 현재의 생활세계 내 적절한 안정과 자유, 현실과 통합한 생명력을 획득해 나가는 방안의 하나로서 탐구된다.

이주민의 생활세계는 이주민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자유와 해방이 더될수록 이주민 개인이 살아온 구체적인 삶의 자리, 즉 생활세계를 구성한 구체적인 사건과 맥락을 통하여 실현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주민의 생활세계는 이주민의 과거 경험과 기억을 부정하고 해체하면서 동시에 탈맥락화된 경험이 기억을 통합하고 해방하며 재구성한다.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의 재해석,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 창출 과정을 통하여 다문화 아카이브는 다문화 이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자공신을 구축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필자는 본 발표문에서 다문화 아카이브의 구축이 갖는 다층적 가치와 의미 가운데 다문화 기록과 아카이브를 생성하는 두 주체, 연구 집단과 다문화 이주민이라는 두 범주가 다문화 아카이브의 구축과정에서 어떻게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창출하고 재구성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정체성의 회복과 재구성, 자공신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공적 기록의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사회에 현대적 의미의 아카이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데에는 2000년대 전후기에 등장한 두 가지 맥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맥락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그동안 냉전체제와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적 영역으로 표출되지 못했던 한국 근현대사의 많은 비극적 사건에 관한 구술 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한 것이다. 70년대 이후 서구 사회를 휩쓸던 구술사 연구 조류에 영향을 받으며 연구 방법론을 수학한 해외 연구자들이 2000년대 전후하여 속속 귀국하며 구술자 연구 방법을 활용한 증언 및 구술생애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관련 부처까지 구술 자료를 생산하면서 구술 자료의 아카이브 구축은 필연적 과정으로 자리매김해 나갔다.

아카이브 구축과 관련된 또 다른 맥락으로는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이어 1999년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 도모를 목적으로

1) 본 발표문에서 생활세계 개념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중점과제에서 제시한 생활세계 개념을 토대로 한다. 최대희는 인간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세계를 생활세계로 인간의 대사적인 생활 조건을 생활 상황으로 개념화하였다. 즉 인간은 자신의 대사적인 생활 상황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며 생활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최대희 2015: 35-36). 이러한 논리를 이주민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주민의 생활세계는 이주민 인구의 타락과 옮겨가는 것에서 생성되는 이주민의 주관적 인식세계를 주목한다. 즉 생활세계 개념은 행위 주체로서 이주민의 주관적 세계가 어떤 삶의 조건에서 어떤 이해과정을 통해 얻어지고 해석과 의미부여 과정을 거치는가를 밝히는 데 기여한다.
2) 대표적인 구술 프로젝트로는 조선인군위안부 및 제주 4·3항쟁, 5·18항쟁 자료집, 한국전쟁 및 건국과 한국현대사 관련 인물 구술사 자료집, 독립운동자 증언집 등을 들 수 있다. 구술자 프로젝트를 추진한 대표적인 정부 및 연구 기관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및 5·18연구소,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숙명여대 아시아 여성연구소,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등을 들 수 있다(김귀옥 2006: 325-340).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며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이라는 목적이 명시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공공성을 갖는 모든 기록물에까지 그 적용 대상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생산된 기록물 가운데 보관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기록정보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 관리해야 할 뿐 아니라 민간기록물도 보존의 가치가 높은 자료일 경우 국가정기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였다. 3)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아카이브에 관련된 요구와 집적을 추동하고 공공기록물 관련 논론을 전개한 채변에는 87년 민주항쟁을 통해 수십 년의 독재체제를 변화하며 얻어낸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한 사회적 원의가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독재정권에서 자행했던 것처럼 정보를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또 집행 과정과 결과를 자기로 편집하고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관련된 민간전문가시민단체·국민이 거버넌스(Governance)를 형성하여 수행하고 폼아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정책이 민주적으로 집행되고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책 수행과정에 생산된 공공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4)

수집된 공공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의 구축 필요성 대두와 함께 사회의 민주적 제도화와 실천을 이루는 한 측면으로 중앙 정부 및 행정기관 중심의 기록 관리라는 다른 범주인 ‘민중의 일상적 삶’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권위주의시대에 대비되는 민주주의시대의 기록으로서 ‘보통사람들의 일상적 삶’은 이들의 일상생활을 수집, 보존, 기록하는 일상아카이브 재료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5)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 공간이 주목되며 각 지역 공간의 역사와 이 안에서 살아가는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이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수립과 이후 8년 시간 동안 급격히 보수화되어 온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해학의 이주민이 차별적으로 겪는 사회적 위상 문제는 한국정부가 이주민 정부의 ‘동화와 배제’ 정책 프레임에 구속되기며 사실상 정부에서부터 밀반대 이주민의 이르기까지 권위적이고 베타적인 구조를 고착화하는 대 기여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

4) 이영하 2009:217.
리의 문제와 한국사회의 성원으로 살아갈 정주의 문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차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다구나 주요 집단의 관리 방식으로 인한 차이와 충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은 남한사회 주요 집단에 대한 소수자는 것이 인식되지 못한 채 사실상 남한사회의 개별적이고 차별적인 이주민 관리 방식에 걸려지고 있다. 다문화 아카이브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문화 이주민의 남한사회 존재에 기여하는 이와 같은 타율적 질서와 대상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현 한국사회 상황에서 다문화주의가 사회를 구성하는 현실적 원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서 아카이브의 출현과 성장을 추도해온 민주성, 공공성, 그리고 보통 일반 주민의 일상적 실천이 다문화 이주민 영역과 관련해서도 일관되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근저로 한 연구 논문은 아직 그다지 활발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다문화 아카이브 관련 연구는 이슬비의 '다문화 기록화 연구(2012)', 신정환의 '다문화 기록물 활용방안 및 다문화 기록관 설립방안(2013)', 등이 있다. 이슬비는 한국사회 소수집단으로 다문화 공동체의 기록과 지역의 기록 관리를 연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 공동체를 기록화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안산시를 연구 사례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다문화 기록화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6) 이슬비는 다문화 기록화의 주체로 자자체 기록관에 소속된 예를 들어 안산시청 기록관에 소속된 기록연구사를 설정하고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보조업무 인력으로 또한 실행주체와 협력하여 기록화를 진행하는 자문조직 구성을 제안하였다. 7) 나아가 다문화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할 기록관의 형태와 다문화 기록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민간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기록관리 전문요원 양성 교육을 제안하였다. 8)

이슬비의 논문이 다문화 기록화에 관한 전반적 문제제기와 실천 방안을 구상한 측면이 강하다면, 신정환의 논문은 수집된 다문화 기록물의 활용방안과 기록관의 사회적 기여에 보다 초점을 둔다. 신정환은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다수의 민중에게 권력이 이동하면서 아카이브 역시 다수 민중에게로 옮겨가기 기록관의 사회적 역할도 변화하였다는 점을 주목하고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이 지역 중심적인 아카이브를 지향하고 '기록의 민주화'를 달성하는 실천이며 문화 자본의 축적 과정이 됐을 역설하였다. 9) 신정환이 논리를 두어 논의하는 아카이브의 사회적 활용을 관통하는 의식은 주류사회에서 소수자 혹은 소수 민중집단으로 살아가는 집단의 삶을 기록하고, 수집·보존하는 작업, 소수민 공동체 아카이브는 각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하여 사회통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

신정환의 논문은 공공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경향이 기록 관리의 주체로서 공동 기관과 뿐 아니라 민간단체 및 보통 일반 주민을 포괄한 기록 생산 주체의 민주화, 다원화를 추구하는 경향과 맥을 같이 하며 아카이브 생산의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주체로서 이주민을 인정하고 협력적 관계를 추구한다는 공동체적 인식을 보여준다. 11) 위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문화 아카이브는 '민주적 의사소통', '거버넌스', '치유와 화해', '공동체적 실천'을 중심 원리로 설정해 볼 수 있다. 먼저 '민주적 의사소통'은 성숙한 인격과

---

6) 이슬비 2012: 2-3
7) 이슬비 2012: 17-20
8) 이슬비 2012: 60-61
9) 신정환 2013: 57-61. 신정환은 다문화 기록물을 다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혹은 조직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구조-맥락을 기반으로 다른 기록의 형태를 할 수 있는 일가, 현지, 개인문서, 작민 신문 집필 자료, 전자기록, 영상 이미지 등 시청각기록, 구술기록, 공공기록, 각종 유형의 박물 등 다양한 종류의 기록을 포함한다(신정환 2013: 63).
10) 신정환 2013: 64-65
11) 신정환 2013: 66
주체의식을 갖춘 행위자들이 민주적이며 상호 문화적인 태도와 양식에 의거하여 의사소통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거버넌스'는 사안과 관련된 다양한 개인, 이해 집단, 행정 조직이 함께 참여하여 상황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간다는 것이다. '치유와 화해'는 이주와 정주 과정에서 경험한 물리적, 정서적, 영적 향상과 상호 존중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흔을 치유하고 행위 주체 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치유와 화해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적 실천'은 한국사회에 편재되어 있는 선주민과 다문화 이주민이 동등한 행위 주체로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공동체적 합의와 통합을 실천한다는 것이다. 아카이브를 구현하는 주체로서 연구 집단과 다문화 이주민의 두 주체를 설정한다. 그리고 다문화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한 한 주체인 연구 집단의 연구 수행을 통하여 관련 자료와 연구 성과물을 자료로서 축적하고 아카이브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연구 집단의 측면에서 다문화 아카이브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협력 주체,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구축 아카이브 논의는 수집된 구술 자료가 아카이빙 과정에서 아카이브 연구 집단의 설계 방향에 따라 일방적으로 고정되는 현상에 대해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다. 즉 이러한 구축에서 아카이브 이용자들은 연구 집단에 의해 제시된 아카이브 자료를 단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역할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카이브의 창출 주체를 연구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아카이브 이용자에게까지 확장하며 이용자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다양한 방안이 서술되었다. 정영애·김형수의 '다문화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자지도의 활용방안,' 유동환·최아름의 '지역 구술아카이브 기반 스토리텔링체험시스템 연구(2015)'는 다중의 공간에서 이주민이 단일한 공간을 통해 자신의 문화적 성격을 형성, 그리고 구술이 없는 구술 아카이브의 문제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그 대안적 사례로 보고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문제의식과 제약을 갖는 대가대 다문화연구소의 아카이브 구축 상황에 있어서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유동환·최아름의 논문은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한 수단이며 내용인 구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점과 논의의 출발점으로 한다. 즉 주제적이고 동등적이며 생산적인 다중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기존의 구술 아카이브 방식은 왜곡되고 재조명한 성격으로 인하여 다중 지역과 일상의 사적 생활에 대한 구술 자료의 생산 요청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구술 자료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2차 콘텐츠의 다양한 개발이 어렵고 구술 아카이브의 집단 창작성과 창작성의 부재가 보이므로 인하여 창작의 의식과 역량을 갖춘 이용자들의 참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카이브의 구축이 극복적으로 지역공동체의 일반 참여자들이 보여주는 적극성을 훼손하여 참여자 스스로 아카이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로 이어진다.12) 유동환·최아름 2015: 255-256

위의 논문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일본 오노미치시 유비용 박물관(Eco-museum) 프로젝트, 히스토리핀(Historypin) 집단지성형 장소 기억 서비스, 그리고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 집단창작형 스토리텔링 체험을 사례로 제시하며 구술아카이브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체험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13) 위 논문에서 제시한 스토리텔링체험 시스템은 문화 지식과 서사 스토리의 스토리텔링을 욕망과 의지를 지닌 행위자로 일상의 동신기술과 서비스와 연계하여 일상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구현하는 새로운 방식의 아카이빙을 제안한다.14)
유동환·최아름의 논문은 다문화 이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다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그 활용성이 대단히 높다. 다음으로 논문에 제시된 사례의 원리를 다문화연구소의 연구진과 대구경북지역 이주민을 두 주체로 한 다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적용해 보 고자 한다. 본 발표문에서는 하나의 시론으로서 제시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1단계로 대구경북지역의 다문화 이주민 및 커뮤니티에 관한 현황 파악, 대구경북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에 관한 현장 조사, 다문화 이주민의 생활세계에 대한 참여관찰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1단계 기초 작업이 이루어지면 2단계로 다문화 지도를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1, 2단계를 통해 다문화 지도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면 3단계로 다문화 이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문화 지도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다문화 아카이브 구축

본 발표문은 다문화 아카이브의 구축 주체로 연구진과 이주민 두 축을 설정한다. 이 두 축은 고유한 활동 영역을 가지면서 동시에 협력 작업을 할 수 있다. 다문화연구소 과제가 지향하는 바가 생활세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먼저 이주민의 생활세계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를 논의하여야 한다.15) 민중이라 지칭하는 보통사람들의 생활사를 기록함에 있어서『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은 조사 주제로 자연과 환경, 몸과 마음, 삶과 일, 놀이와 일, 가족과 이웃, 마을·고을·나라, 여성과 아동, 사람의 종류, 공간과 교류, 세월과 신체성 등 열 가지 영역을 설정하였다.16) 이주민의 생활세계에 관한 다문화 아카이브는 생활세계에 관한 이주민까지의 분류와 기본 주제를 원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이주민의 고유한 특성을 따라 모국생활, 이주과정, 문화 갈등, 자녀 양육, 초기적 생활 등과 같은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최대희의 생활세계 개념 규정과 연관하여 본다면, 생활세계의 관점에 근거하여 다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러한 주제 영역 그 자체라기보다 이러한 주제 영역을 인식하고 향유하는 행위 주체의 상상 행위를 중시한다. 즉 생활세계의 관점에서의 다문화 아카이브 방식은 이주까지 전통적으로 수행되어 온 구술 아카이브 방식과 차이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 는 구술 자료가 하나의 고정된 네리티브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네리티브를 생성하는 행위 주체의 내면으로부터 콘텐츠의 구체적인 표현 양태가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update)된다는 것이다.

구술 행위자가 동시에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주체가 되는 이러한 방식은 아카이브의 범위를 이주까지 아카이브의 영역으로 포용되지 않았던 구술 자료 생성의 전(前) 과정, 그리고 다양한 차원의 수행 과정까지 확장한다. 또한 구술 자료 생성의 다양한 주제, 연구진에서부터 협력 조직 관계자까지 모든 행위 주체의 모든 수행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다. 발자국 구술

---

14) 논문에서 제시하는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장소정보'를 인터페이스로 하여 구술자 개인의 회상을 집단 기억으로 만든다. 구글맵 등 글로벌 소통이 가능한 지도 시스템이 구술 자료의 보다 적절한 제공을 위해 기반으로 다양한 사건이 사진, 영상, 음성, 텍스트 등 구술자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서술된다(유동환·최아름 2015: 267).
16) 함활희 2008: 21
자료 생성의 새로운 방식을 다문화 아카이브 기반 조성, 이주민을 위한 e-사회문화지도의 작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보자 한다.

1. 다문화 아카이브 기반 조성

다문화 아카이브의 기반 조성과 관련한 이슬비의 제안을 보면, 관련 행위주체로 기록연구사(전문요원 포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그리고 이용자를 들고 있다. 혼합적인 다문화 기록물 생산주체는 기록연구사이며 기타 행위주체들은 기록연구사가 기록물 생산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기록물 생산에 관여하는 다양한 행위주체는 네트워크의 수준에 따라 개별 행위자에서부터 지역 협력네트워크 그리고 중앙협력네트워크와 연계된다.17)

1) 다문화연구소 내 다문화 인프라 조성

다문화연구소 내에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다문화 인프라는 다문화연구소 소속의 언어지원 인력풀이 미비한 상황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유학생 풀과 연계하여 언어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연구소 내에 이주민 출신 국가의 역사 사회 문화를 연구할 분과 연구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각 팀은 출국국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수집, 이주정책 및 이주관련 지원연계망, 이주 현황 및 귀환이주민의 문제 등과 관련된 과제를 담당한다. 이것은 후속세대 양성과도 관련된 것으로, 유학생 및 특정 국가 지원인력이 분과 연구팀 활동을 통해 이주 관련전문요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다문화 이주민 연구기록 파일 만들기

다문화연구소의 경우, 다문화 자료를 생산하는 핵심주체는 연구진이다. 윤택림은 ‘문화기술적 자료의 연구기록 관리 방안 연구(2012)’에서 ‘구술’이라는 특수한 자료를 생산하는 연구활동에서 연구기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어 연구기록의 다양한 범주와 자료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19)

<table>
<thead>
<tr>
<th>범주1</th>
<th>범주2</th>
<th>범주3</th>
<th>범주4</th>
</tr>
</thead>
<tbody>
<tr>
<td>연구기록 분류</td>
<td>연구지원기록</td>
<td>연구수행기록</td>
<td>연구정보기록</td>
</tr>
</tbody>
</table>

17) 이슬비는 안산시의 경우, 공공영역으로서 안산시 신화 외국인주민센터, 그리고 센터 소속한 인력, 기타 다양한 민간단체까지 다문화 기록 생산의 주체로 간주한다(2012: 17-20).
18) 2015-2016년도 연구 주제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종교영화 연구, 지역 미디어, 문학 작품 연구, 북한 및 베트남 이주민의 문화적 연구 등이 계획되어 있다.
19) 윤택림의 선형연구 정리표를 보면, 연구기록의 범주는 크게 보아 연구준비과정, 연구수행과정, 그리고 연구관리 및 행정지원과정, 연구결과물로 나눌 수 있다. 연구기록 범주에 따라 자료의 형태도 연구계획서, 연구 지원 및 행정 관련 문서, 질문지, 음성 및 영상기록, 연구노트, 사진, 중공고서, 연구비 지원서, 계약서, 인력 투입표, 최종보고서 혹은 학술보고서, 연구 논문 및 결과물 등이 나열 수 있다(윤택림 2012: 74).
20) 윤택림 2012: 79
<표2-1> 사례: 기술계층

<table>
<thead>
<tr>
<th>결제원(collection)</th>
<th>생산자(연구자)</th>
<th>산출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시리즈(series)</td>
<td>대주제</td>
<td>글로컬 생활세계로서의 다문화에 대한 가치창조적 연구</td>
</tr>
<tr>
<td>파일(file)</td>
<td>연구프로젝트, 차수</td>
<td>생활세계로서의 다문화에 대한 학제적 실천 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 2014-2015(2단계 2차년도)</td>
</tr>
<tr>
<td>아이템(item)</td>
<td>매체별 기록</td>
<td>문서류(논문)</td>
</tr>
</tbody>
</table>

<표2-2> 파일 계층 기술 사례 1

<table>
<thead>
<tr>
<th>기술요소</th>
<th>기술사례</th>
</tr>
</thead>
<tbody>
<tr>
<td>등록번호</td>
<td>SNH_01(구술생애사), 012(탈북여성)</td>
</tr>
<tr>
<td>기술계층</td>
<td>파일</td>
</tr>
<tr>
<td>표제</td>
<td>탈북여성 구술생애 깊이 읽기, 2015(2단계 2차년도)</td>
</tr>
<tr>
<td>규모와 매체(유형)</td>
<td>녹취문 4건 20매(A4), 참고자료(논문/인터넷 자료) 5편/40장, 사진 3매, 참여관찰 일지</td>
</tr>
<tr>
<td>생산자</td>
<td>신난희(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교수)</td>
</tr>
<tr>
<td>생산일자</td>
<td>2015년 12월 18일</td>
</tr>
<tr>
<td>생산내용</td>
<td>과제번호 NRF-2013S1A5B8A01054225, 한국연구재단 지원</td>
</tr>
</tbody>
</table>
| “탈북여성 구술생애 깊이 읽기”는 2000년대 전후에 남한사회에 탈북여성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구술생애에 관한 학계 및 사회 일반의 관심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본연 70년 동안 남북한사회는 적대적 냉전관계를 유지하며 이데올로기적 맥락에서 다른 사회를 인식해 왔다. 또한 미군정과 탈북, 비법체류와 인신매매 등 험난한 생애 경험을 겪어 온 탈북여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북한사회 전 역사와 인상은 두 탈북여성을 선정하여 이들의 생애 경험을 텍스트로 북한사회의 고유한 맥락을 살펴보고 각 탈북여성 이 이러한 북한사회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행위 주체의 욕망과 기대, 의식을 발현하고 추구해 가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지원기관 | 한국연구재단 |
| 과제기간 | 2014-2016 |
| 과제형태 | 공동 |
본 논문은 탈북여성의 의식과 문화세계 안에 잠겨 있는 북한적 양식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이에 바탕을 둔 생애 경험 깊이 읽기, 구술의 재구성을 통한 탈북여성 이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술자의 주체적 구현 행위인 구술은 구술자가 주관적으로 선택하고 편집한 결과로서 연구자는 주관적 편향성과 왜곡을 최소화하여 그 의미를 분석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구술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의 편집과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조건과 맥락 속에서 구술을 재구성하고 분석하는 구술생애 깊이 읽기 방식을 적용하여 두 탈북여성의 생애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표3-1** 사례: 기술계층

<table>
<thead>
<tr>
<th>작업선(collection)</th>
<th>생산자(연구자)</th>
<th>강의와 9명</th>
</tr>
</thead>
<tbody>
<tr>
<td>시리즈(series)</td>
<td>대주제</td>
<td>다문화사회 이해</td>
</tr>
<tr>
<td>파일(file)</td>
<td>연구프로젝트, 차수</td>
<td>6조 북한이탈주민, 2015년</td>
</tr>
<tr>
<td>아이템(item)</td>
<td>매체별 기록</td>
<td>문서 및 ppt</td>
</tr>
</tbody>
</table>

**표3-2** 파일 계층 기술 사례 2

<table>
<thead>
<tr>
<th>기술요소</th>
<th>기술사례</th>
</tr>
</thead>
<tbody>
<tr>
<td>등록번호</td>
<td>SNH_02(다문화 현장체험)_02(북한이탈정년)</td>
</tr>
<tr>
<td>기술계층</td>
<td>파일</td>
</tr>
<tr>
<td>제목</td>
<td>다문화사회의 이해, 2015년도 1학기</td>
</tr>
<tr>
<td>규모와 매체(요원)</td>
<td>현장체험 프로젝트 계획서 1매(2장), 현장체험 프로젝트 발표 ppt, 발표 음성 파일 1개</td>
</tr>
<tr>
<td>생산자</td>
<td>강의와 9명, 강원대학교</td>
</tr>
<tr>
<td>생산일자</td>
<td>2015년 6월 16일</td>
</tr>
</tbody>
</table>

생산생경정보 다문화사회의 이해 수업을 진행하며 혼자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북한이탈정년을 직접 만나 함께 이야기하고 생활해보면서 같은 청년으로서 또한 이주민으로서 이들의 꿈과 희망, 고통과 한계를 이해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지원기관 간호학동과
과제기간 2015
과제형태 공동

키워드(주제어) 다문화, 현장체험, 북한이탈정년, 빈곤, 웨이트, 수용소, 정신교육, 탈북루트, 실업

히로일 빈곤과 탈북, 중국에서 복습한 후 수용소 생활을 할, 정신교육을 강요받는 북한 주민으로서의 삶, 중국 등지를 거쳐 탈북한 후 남한사회에서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살아가는, 활동 후 조상

저작권 감의와 9명
언어 한국어

관련기록물정보 문서, ppt

아키비스트 신난희,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기술일자 2015년 12월 18일
보존장소 신난희 개인 드라이브

2) 다문화 이주민 지원기관 및 활동 단체 네트워킹
다문화 이주민 지원기관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네트워킹 매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공기관에는 정부 부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북하나재단, 재외동포재단, 각 대학 연구소 등의 다문화이주민 지원기관은 공공기관 관련 단체, 결혼이주여성 관련 단체, 종교단체, 지역 커뮤니티 혹은 국가별 자소모임 등을 들 수 있다. 네트워킹 매체는 언론, 방송, 인터넷, 문화 매체 등을 말한다. 다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각 지원기관을 군(群)으로 묶어 유관기관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결망 내 자료의 공유, 상호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이주민을 위한 e-사회문화지도의 작성

1) 경산 지역 e-사회문화지도의 작성

경산 지역 e-사회문화지도의 작성은 다문화연구소 자체로 산출하기는 어려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다문화연구소 연구진이 경산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지도를 설계한 후 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다문화 이주민, 다양한 지원기관 및 활동단체가 파트너쉽을 통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e-사회문화지도는 전자지도(Digital Map)의 하나로 전통적인 종이지도에 수록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컴퓨터나 웹상에 구현하여 수록 내용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전자지도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추적된 내용을 정보의 형태로 제공하는 gis21)로도 구현된다(정영애·김형수 2014: 15). 전자문화지도는 역사·문화 관련 문헌정보 자료 속에 담긴 사·공간 정보의 상호 관계를 전자지도,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같은 정보기술(IT)를 이용하여 기능적으로 확장시킨 역사문화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22) 전자문화지도는 전문 학술정보를

21)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적으로 참조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저장, 생산, 조작, 분석,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지리적 자료 그리고 인적자원의 통합체를 말하며, 지표면에 위치한 정보를 저장하는 자료를 모으고,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시스템(네이버 지식백과 사사상식사전).
일반인이 이해하기 위한 시청각 자료를 제공하여 정보 수요자 중심의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3)

경산 지역 24)는 진량공단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며 이슬람 사원, 아시안 마트 등이 조성되어 있고 사회적 기업,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등 다양한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경산 지역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한의대 등 섬유 관계 대학이 들어설 세계 대학이 인구와 거주 지역이 조성되어 있고 2개 옴, 6개 면 지역에는 결혼이주여성이 다수 생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경산 지역은 다문화 공간으로서 다문화 생활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산 지역 e-사회문화지도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민을 주요 이용자로 하여 경산 지역의 지역 인프라와 역사·사회·문화와 관련 정책 제공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언어는 한국어 기본으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다문화 이주민 출신국 언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경산 지역 e-사회문화지도는 세 개의 차원을 과도한 설계한다. 하나는 기존의 GIS에서 제공하는 지역생활의 기본 정보지도로서 이 정보는 이주민의 모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차원은 이주민으로 경산 지역에서 생활하며 요구되는 다문화 생활세계 관련 정보를 추가한다. 이 때 생활세계 정보는 기본적으로 위치 정보로 검색기능을 통해 다문화 생활세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차원은 이주민이 직접 사회문화지도에다가 다문화 생활세계 관련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히스토리핀(Historypin)과 커뮤니티 매핑(cummunity mapping) 개념을 토대로 한 것으로 경산 지역에 살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이주민 개인 혹은 이주민 커뮤니티가 지역 내 특정 위치 혹은 경관과 관련된 지식, 경험, 기억 등을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다.

2) 이주민의 모국생활 관련 e-사회문화 지도의 작성

이주민의 모국생활 관련 e-사회문화 지도 개념은 결혼이주여성이 이중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주민출신 부모를 둔 2세대가 이중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모국생활 관련 e-사회문화 지도는 이주민의 모국생활과 관련된 특정 사안, 지역, 풍습 등에 관한 개인 지식 및 경험에 관한 네러티브를 핵심 콘텐츠로 한다는 점에서 이주민 개인 스스로 자신의 문화 지식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하고 사회적 역량을 키워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이주민의 모국생활 관련 e-사회문화 지도는 단기적으로 한국자치의 이중문화교육의 자료로서 살아있고 풍요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ECAI는 불교 고문서를 전자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전자불고문학협의회에서 비롯되었다. 국내에서 제작된 대표적인 전자문화지도는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을 동일하다. 23) 정영애·김형수 2014: 16

24) 경산시(慶山市)는 북동쪽은 영천시, 남동쪽은 청도군, 서쪽은 대구광역시 동구 및 수성구에 접한다. 1999년 이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상업용지역으로 성장하였고, 중산 · 정평동과 입당동 일대에 대구 도시철도 2호선이 연결되었다.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구한의대 등 교육 기관이 많다. 경산시에는 신명공단이 있다. 인근 지역에는 농공단지가 자리를 잡고 있다. 25) 히스토리핀(Historypin)은 역사(History)와 고정(Pin)이 결합된 단어로 구글 지도(Google map)를 기반으로 지도 위에 특정 지역에 관한 사진, 음성, 동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디지털 아카이브이다(유동화·최아름 2015: 259-260).

26) 커뮤니티 매핑(cummunity Mapping)은 지역사회와 지도화 작업이라는 개념의 합성어로 커뮤니티 구성원이 함께 사회문화나 지역의 이슈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지도로 만들어 공유 및 이용하는 프로젝트이다(유동화·최아름 2015: 263-265).
적으로 각 이주민 집단의 이주사 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 IV. 나가며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목적이 가진다. 다문화 이주민 관련 연구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카이브의 구축과 다문화 이주민이 이주지사회에서 정주생활을 구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아카이브의 구축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갖는다. 후자의 측면에서 본 발표문은 다문화 아카이브 기반 조성, 이주민을 위한 e-사회문화지도의 작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다문화 아카이브 기반 조성 부분에서는 먼저 다문화 연구소 내 다문화 인프라 조성 문제, 다문화 이주민 연구 기록 파일화 문제, 다문화 이주민 지원기관 및 활동 단체 네트워킹 문제를 살펴보았고 이주민을 위한 e-사회문화지도의 작성 부분에서는 경산 지역 e-사회문화지도의 작성과 이주민의 모국생활 관련 e-사회문화 지도의 작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본 발표문은 일종의 시론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특히 e-사회문화지도의 작성은 앞으로 다문화연구소 연구팀, 정보기술 분야 연구팀, 경산 지역 다문화 이주민 지원활동을 해 온 많은 지역 지원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또 하나의 프로젝트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 작업을 수행하여 경산 지역 다문화 이주민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소망해 본다.
곽건홍. 2011 ’일상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이슬비. 2012 “다문화 기록와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다문화사회에서 한국종교지형의 변화에 대한 연구
―대구지역 종교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박 종 수(대구가톨릭대학교)

목차
Ⅰ. 다문화사회 ≒ 다종교사회
Ⅱ. 대구지역의 역사적 전개와 종교지형
Ⅲ. 대구지역 종교지형의 변화
Ⅳ. 대구지역 종교지형에 대한 전망

Ⅰ. 다문화사회 ≒ 다종교사회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문화현상을 일으키는 주체들이 상호 역학관계를 만들어내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구화 또는 세계화에 따른 이주의 보편화로 글로벌한 이주민이 특정한 로컬로 이주하여 선주민과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사회를 다문화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사회에는 2015년 10월말 현재 약 189만 명의 이주민(체류외국인의 수)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남한 인구의 약 3.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세계 인구 대비 평균 다이아스포라(diaspora)의 2.5%보다 높은 수치이며, 한국사회가 고령화 및 저출산의 문제로 이주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살 수만 없다는 점에서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은 좀 더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회변화에 따른 대비가 요청되고 있다.

본고는 한국 다문화사회가 빚어낸 다종교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문화와 종교의 관계에 있어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다문화사회는 다종교사회와 유사하기 때문이며 다종교 사회의 쟁점과 과제 및 전망을 통해서 다문화 사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종교인으로 전수 조사된 바 있다. 이 통계는 2015년 11월말에 (표본)조사를 마친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겠지만, 한국사회에서 종교는 여전히 문화의 중요한 변수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특정 종교가 국가종교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신종교' 순으로 한국종교의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처럼, 한국종교 또한 사회에 따라서 변화하며 한국종교의 내용 또한 변화한다. 한민족문화의 원형으로서 한국종교를 '무'(샤머니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현대 한국 종교는 더욱이 지역 또는 공간적 범위로 한국사회 내에서 한민족이 신앙하는 종교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 인한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서 이주민의 종교가 한국사회에 유입되면서 한국 종교지형의 형성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이슬람교 이주노동자 및 유학생, 결혼이주민 등의 증가로 이슬람센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종교생활을 위한 '할랄(Halal: 이슬람 교리에 따라 허락된 것)' 음식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 사회 내에서 기존의 종교공간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1) 최근 KBS1 TV에서는 특집다큐멘터리로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를 3부작으로 방송하였다. 세부 내용으로는 제1부에서 '이슬람, 종교가 아닌 비즈니스(12/5), 제2부에서 '할랄푸드 시장을 잡아
면서 무슬림에 대해 주목하고 대응하게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한국종교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본 연구가 주목한 곳은 대구지역이다. 대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정치적·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종교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피면 보수화된 다른 지역의 종교지형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국종교지형의 변화를 지역적 사례를 통해서 확인하려는 본 연구는, 다양한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외래종교의 유입이 한국종교지형의 변화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대구지역의 로컬적 성격을 역사적 전개에 따라서 살펴본다. 그리고 대구지역의 종교지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본 후, 다문화사회적 전환에 따른 종교지형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대구지역 종교지형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구지역 종교지형의 변동에 대한 전망을 해볼 것이다.

Ⅱ. 대구지역의 역사적 전개와 종교지형

1. 대구지역의 역사적 전개

대구지역에는 월성동과 서변동유적 등의 발굴을 통해서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구라는 지명은 삼국시대부터 유래한다. 삼국시대 대구의 뜻은 대구현, 달벌(達伐), 달불성(達弗城), 달구화(達句火), 달구벌(達句伐)이라 표기되었는데, '용(火)'과 '벌(伐)'은 촌락, 읍성을 뜻하는 말이며, 달(達)은 원(圓), 주(周) 등 넓은 공간을 의미한다. 삼국통일 이후 군현제 실시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겪었던 대구지역은 그 과정에서 정치, 사회적 비중이 높아 점선문 9년(688년)에 새로운 도읍의 후보지로 부각되어 천도(遷都)의 시도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삼국통일 이후 군현제 실시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겪었던 대구지역은 그 과정에서 정치, 사회적 비중이 높아 점선문 9년(688년)에 새로운 도읍의 후보지로 부각되어 천도(遷都)의 시도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통일신라시대를 이어 건국된 고려왕조가 수도(首都)를 송악(松岳)으로 정하자 대구지역은 그동안 지니고 있던 지리적인 비중에 약화되었다. 건국 초에 고려 왕조는 신라의 지방제도를 답습하다가 현종대에 이르러 대대적인 지역개편을 시작으로 몇 번의 변화를 거쳐 결국 5도양계(道兩界), 4도호부(都護府), 8목(牧), 15부(府), 129군(郡), 335현(縣), 295진(鎭)으로 확정되었다.

고려의 체제개편은 현종 9년(1018년)의 지방제 개편에서, 통일신라시대와 같이 대구현의 영현은 수창군이었지만, 수창군이 통일신라시대의 9주(州) 5소경(小京) 하에서의 양주(良州)에 속했다가 이때에 경상도 상주목(嘗州牧)의 경산부(京山府) 관할로 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속현 속군 등의 임내(任內)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지방 향리(鄕吏)들의 자치에 맡겼다. 하지만 예종대(代) 부터의 대량적인 유민(流民) 발생이 지방관 파견의 필요성을 제고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수창군의 영현이었던 대구현에도 영향을 미쳐 인종 21년(1143년)에 현령(縣令)이 파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창군의 영현이었던 화현현과 하현현이 대구에 이숙되고, 충렬왕(忠烈王) 때에는 대구현은 수창군에 인하되어, 원래의 이수리(邑史)를 가입시켰다. 이에 따라 대구현의 영현이었던 화현현과 하현현이 대구에 이숙되고, 충렬왕 때에는 대구현은 수창군에 인하되어, 원래의 이수리(邑史)를 가입시켰다.
때에는 의성현(義城縣)이 대구에 이속되었다가 복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수창군에 속했던 영현들이 대구로 이속된 것은 대구현의 발전속도가 점차 수창군을 능가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반증이다.

대구는 조선 초기만 해도 농업지대로서 높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행정적 도시로서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사적, 교통적 요지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され, 선조 34년에는 감영(監營)이 설치되었으며 이로서 대구는 영남(嶺南)을 대표하는 정치, 행정, 군사, 경제적 중심지(中心地)로 발전하게 되었다. 고려말기에 이어 대구의 속현이었던 화원현은 그동안 대구에서 성주목(星州牧)에 이속되어 있었고, 세종(世宗) 원년(1419년) 5월에는 대구현이 대구군(大邱郡)으로 승격하였는데 당시 대구본군(大邱本郡)과 수행하빈, 해안의 3개 속현을 합한 호구(戶口)는 1,249호에 8,629구에 달했다.

대구에는 고종(高宗) 32년(1895년) 지방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상도 감영이 계속 상주 하였으며, 그 후에 있어서도 한일합방(韓日合邦) 당시 지방제도의 변천에 관계없이 대구가 경상도 도치(道治)였던 점에는 변하지 가 거의 없었다. 영조 26년(1750년)에는 대구(大邱)의 유생(儒生) 이양채(李亮采)가 대구의 구(丘) 자가 공자의 이름인 구(丘)와 같은 자이므로 공자의 이름을 직범(直犯)하여 인심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하여 이를 바꾸고자 상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정조(正祖), 헌종(憲宗) 때에는 대구(大邱)가 대구(大丘)와 대구(大邱)가 혼용되다가 철종(哲宗) 이후에는 대구(大邱)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1907년 서상돈, 김광제 등이 중심이 되어 기울어져 가는 국권을 극복, 극복으로 되찾으러는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1915년 서상돈 등은 경상지역의 독립투사들과 함께 조선국민회복단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3·1만세운동에서 대구지역의 운동을 주도하였다. 1927년에는 신간회 대구지회가 결성되어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의열단 대구지회장에 의한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구지역에서는 1930년대 이후에도 학생들의 비밀결사 운동이 계속되었고,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한 지속적인 항일 투쟁이 전개되었다.

미군정 이후,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대구는 대구시로 개칭되었으며, 1950년 6·25 전쟁 중에 대구는 수많은 피난민의 피난처가 되었고, 낙동강방어선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960년 이승만 정부의 독재는 계속되자, 대구지역 학생들은 28일 독재를 반대하는 시위를 감행하였다. 28만 민주운동은 이후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와 더불어 4·19 혁명의 도화설이 되어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2. 대구지역의 종교지형

대구 지역에서는 삼국시대 이래 불교와 유교, 천주교, 개신교, 신종교 등의 종교지형이 형성되어 왔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종교인구는 약 53%인 24,970,76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구 지역 종교인구는 약 54%로 나타났다. 전국 종교인구의 종교별 분포는 불교가 약 43%, 개신교가 약 35%, 천주교가 약 20%, 원불교가 0.5%, 유교가 0.4%, 천도교, 중산교, 대종교가 각각 0.18%, 1.44%, 0.0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 종교인구의 종교별 분포가 불교가 61%, 개신교가 약 19%, 천주교가 약 18%, 중산교가 약 0.23%, 원불교가 약 0.15%, 유교, 천도교가 각각 0.2%, 0.13% 순 8)『고려사<지리지> 의성현. 9) 세종7년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에는 대구군의 속현으로 수성, 하빈, 해안의 3현만이 기재되어 있다. 10)『대구시사』 제1권 통사,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p.703. 11)『대구의 향기』, 대구직할시, 1982, p.39.
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성별간 종교인구 비율은 남성의 경우 51%, 여성의 경우 58%가 종교를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1) 불교

삼국시대 대구 지역에 세워진 사찰은 동화사와 부인사이다. 동화사(桐華寺)는 극달화상이 창건하여 유가사라 불렀으나, 왕가의 원당으로 중장자인 심지왕사가 부원인 현덕왕을 중심으로 한 양실의 복을 기원하는 원당으로 동화사로 개칭하였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의 본사로 총림을 형성하고 있다. 부인사(符仁寺; 夫人寺)는 현재 대구광역시 신무동에 소재하는데, 매년 3월 15일(음력)에 신덕제를 지내는 것으로 보아 부인사의 부인(夫人)은 성덕여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성덕여왕의 원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찰에는 초조대장왕사가 보관되었으나 고려 고종19년(1232)에 제2차로 침입한 몽고에 의해서 소실되었다고 한다. 현재 동화사의 말사(末寺)의 하나로 되어 있으며, 당사는 화엄종의 사찰이다.

통일신라 이후 창건된 사찰은 동화사와 부인사보다 작은 규모의 사찰인 파계사, 안일사, 임휴사, 은척사, 영복암 등이 세워졌으며, 왕실 또는 권력과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운영되었다. 조선 시대 불교는 새로운 창건보다는 기존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그쳤으며, 일부 강점기에도 조선총독부의 사찰령시행 규칙으로 인해 통제되었다. 다만, 이 시기에 보현사, 법륜사, 관음사, 대성사, 정혜사, 통천사, 대덕사 등이 세워졌다.

2) 천주교

경상도 지역에는 1760년경까지도 천주교가 전래되지 않았으며, 이황과 같은 인물이 배출되어 추노지향(鄒魯之鄕)을 자처하는 만큼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서 새로운 사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왔다. 하지만 서학(西學)의 경우 천주교의 수용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성립이전에 신앙실천운동이 이 지역에서 먼저 있었다. 홍유한은 영남지방에서 처음으로 서학을 연구해 신앙으로 받아들인 첫 신자였으며, 세스페데스신부가 조선에서 처음으로 서학을 불교구하고 성사를 집행했던 곳이다. 이러한 점은 대구지역이 한국교회의 성립 이전에 신앙의 대상으로서 서학을 다른 지방보다 먼저 받아들인 곳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12)

천주교는 두 차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이동과 확산이 계속되었는데, 영남지역에는 대백산, 소백산, 순흥, 봉화, 양성, 상주, 안동, 영양, 청송, 진보, 대구, 안의, 안양, 고성 등 16개 지역에 전파되었다. 13) 신앙의 자유가 묵인되던 1882년부터 1889년 말까지 영남지역에서는 신학교들의 포교활동을 통해 영남군 165명의 신자가 늘어났다. 14)

1886년 대구본당이 설정된 이후 1910년까지 영남지역에는 모두 18개의 본당이 설립되었다. 1886년 대구본당을 필두로 부산본당(1889), 가산의 낙산본당(1894), 금천 황금본당(1901), 마산 완월동본당(1901), 진주의 용평본당(1904), 영천의 유휘본당(1907) 등 7개 본당이 설립되었다.

일제 강점기 후 1948년 8월 29일 파리외방전교회는 서울과 대구교구를 온전히 한국인 성직자들에게 위임하고 철수하였다. 한국인에 의한 자치교구로 성장한 대구교구는 바로 그해 12월 9일 최덕홍 신부가 제6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1949년 1월 30일 주교서품 및 교구장 착좌식을 가졌다. 대구교구는 충북제덕도 수도회에 첫, 성주, 선산 지역에 포교를 위촉하고 대리구를 설정하여 최덕홍 주교의 주체로 착좌식도 가졌다.

12)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대구본당 백년사』, 1986, p.117.
14)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대구본당 백년사』, 1986, p.138. 천주교식 무료 장례예식을 통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며 입교동기를 마련하였고, 고아들에 대한 구제사업을 통해서 교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3) 개신교

개신교가 대구지역에 전래된 것은 1893년 4월 22일 베어드에 의해서이다. 베어드가 1896년 10월 서울지역 교육담당 고문으로 임명되어 가자, 그의 처남인 아담스가 대구에 최초의 교회(대구읍교회, 대구제일교회)를 세웠다. 대구에 교회가 세워지고 의료 및 교육사업과 선교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광무 2년(1898) 10월 1일 제일교회 구내에 제중원을 열고 의료선교사 존슨이 원장으로 취임했다. 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초등중학교가 세워지기 일체에 사할인 교회들이 다투어 학교를 설립하여 1910년에 이르러 39개의 교회가 학교를 세웠다. 한국교회가 독립을 장려하여 독립한 것에 맞추어 대구경북 교세도 크게 성장하였는데, 제일교회의 경우는 1907년과 1933년에 두 번의 준공을 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대구광역시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 623개였던 교회가 2000년에는 1,091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 교직자(성직자 또는 종교전문가)도 1,365명에서 2,611명으로 증가하였다.

4) 신종교

해방 이후 대구지역에서의 신종교는 불교계의 분파인 진각종이 대두하였으며, 중국 도교계통의 신종교 교단이 생겨났다. 그리고 1960년대 말부터 신암동과 내당동, 비산동 등 외곽지역에 정일회(정일회: 한얼교) 등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원불교와 대순진리회 등의 종교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III. 대구지역 종교지형의 변화


국내 유입된 무슬림의 권역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랍계는 이집트인, 수단인, 사우디인, 모로코인, 튀니지 이란, 리비아, 바레인, 예멘, 알제리, 이라크, 이라크, 이란인들이다. 2) 비아랍 중동계는 터키와 이란인이다. 터키인들과 비교할 때 이란인 이주민들의 숫자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란인 이주민들은 사파무슬림으로서 다수 무슬림들이 일치하는 마스지드(Masjid)나 소규모 예배 모임인 무살라(Musallah)에 모이는 경우가 드물어 소재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다. 3)중앙아시아계는 우즈베키스탄인, 카자흐스탄인, 키르기스탄인 등이다. 4) 남아시아계는 방글라데시인, 파키스탄인 등이며 5) 동남아시아계는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이다.

조선 중기 이후부터 영남지역의 중심지로 성장한 대구지역에 대한 연구는 역사학을 비롯하여 인류학, 민속학, 사회학, 지리학, 건축학, 조경학 등의 분야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이 지역에 대한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는 학문적인 사실의 나열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이 지역에 대한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는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에 그치는 경향이 많았으며, 특정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역사학과 인문학 등 인문학적 연구는 도시사의 서술에 일정한 성과를

15)『대구시사』제1권 통사,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 p.878.
16) 조희선·김대성·안정국·오종진·김효정,『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중동연구』27-2, 2008, pp.85-86.
이루고 있다. 식민시기의 상업중심도시로 성장하는 대구의 당대 사정을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절충의 과정으로 서술함으로써 주체의 의지가 수행하는 역사적 행위의 다원성을 도시공간의 구조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시대적 설정은 주로 식민시기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대구지역에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와 최근의 후기 근대적 양상을 포함하는 도시사 연구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 분야에서의 다양한 주제로 접근할 때 보다 통합적인 차원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대구·경산지역의 문화적 특수성을 살펴본 후, 이 지역에 최근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무슬림들의 현황과 그들의 종교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슬람교의 유입과 확장

대구지역이 수구보수의 본고장처럼 인식되게 된 계기는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와 관련이 있다. 1946년 대구에서 일어난 10월 항쟁이나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진보당 조봉암 후보의 높은 득표율, 1960년의 2·28 학생자활, 교원노조의 전국 최초 결성 등은 대구지역이 지금과 같은 보수적인 지역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박정희 집권 이후 대구지역이 권력의 소외지역에서 권력의 수혜지역으로 바뀌면서 점차 대구지역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화되었다. 특히, 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이 이 지역 출신의 군부지배자들이 약 30년간 국가권력을 장악하면서 국가주의, 반공주의, 성장주의, 친미주의, 친자본주의라는 이념적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17)

대구지역의 다문화 공간은 지역의 공업단지를 바탕으로 크게 두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구지역은 수서공단 주변에서 다문화 공간이 나타나며, 각 에스니티 집단들의 공동체와 더불어 종교공동체들이 확인된다. 본고에서는 특히, 종교공동체로서 무슬림의 공동체를 다룬다.

대구지역에서 이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된 지역은 당구에 위치한 성서공업단지 주변이다. 성서공단은 1965년에 1차 단지 2,720㎡의 면적으로 공업지역이 결정 고시되어, 1984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로 조성된 공업지역이다. 그 중 성서공단1단지가 조성된 곳은 2006년 현재 958개의 업체가 조업 중이며, 성서공단1단지의 면적은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성서공단의 조성과정은, 1990년 11월부터 이곡동, 신당동, 용산동, 장기동 일원 총 95만평 지역을 성서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였고, 1992년 토지개발공사에 의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였으며, 1994년에 1차지구가 형성되었고, 1998년 2차지구가 형성되었다. 특히 경부선과 구마선, 그리고 88고속도로가 연결된 성서IC와 남대구IC가 이 지역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대구IC의 확장으로 교통이 편리해졌다. 또한 6만 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대형 할인마트를 비롯하여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하였다. 그 중 성서공단1단지가 조성된 곳은 2006년 현재 958개의 업체가 조업 중이며, 성수의복과 조립공장 등이 전체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곡동, 장기동 일대의 주택지구는 이주민들이 입주하기 전부터 형성되었던 불량주택지구와 성서공단이 형성될 때 공단부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이주시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이주민 주택지가 복합된 지역이다. 이들 주택들은 예전부터 노동자들이 이용하던 폐방으로의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원래부터 있던 가옥의 대부분은 빌라 공동주택을 사용하고 있으며, 용실은 없다. 반면, 이주민들의 가옥은 대체로 2층 이상의 다가구주택으로, 주인가족이 살고 있는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방을 대

18)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http://www.seongseo.or.kr) 2015.11.15.검색.
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주민과 이주민에 관계없이 인근에 소규모의 영세공장이 많은 이유로 일찍부터 이 지역은 이동이 잦은 노동자들의 주택공급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외부인의 유입에 대하여 비교적 거부감이 적은 지역이었다.19)

대구지역 다문화 공간은 아래의 <그림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대구 지역에 이슬람교가 언제 유입된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무슬림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1999년부터 이다. 이들은 사업가와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으로 국내에 들어와 무슬림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으며, 2006년까지 여섯 차례나 장소를 옮기면서 현재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전동에 이슬람센터를 마련하였다. 대구 이슬람센터는 총 3층으로 1층에 도서관과 교육원, 사무실이 있으며, 2층에는 예배당, 3층에는 예배당 및 쉼터가 마련되어 있다.


---

나타났으며, 중앙아시아계 무슬림은 노동자-결혼이민자-유학생-기업인 순으로, 남아시아계 무슬림은 노동자-결혼이민자-기갑인-유학생, 동남아시아계 무슬림은 노동자-유학생-결혼이민자-기업인 순으로 나타났다.20) 국내 유입된 다섯 권역의 무슬림 집단들은 대체로 노동자가 많았으며, 아랍계 무슬림 보다는 아시아계 무슬림들이 결혼이민자로 유입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시아계 무슬림 중 결혼이민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일반 이주민 지원단체와 함께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국내 거주 무슬림들은 각 지역의 이슬람 성원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2015년 현재 135,000여 명의 무슬림이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양산, 안산, 부평, 파주, 경기경주에 이슬람啡원(마스jid)가 있으며, 안산, 포천, 인천, 서울송파, 제주, 대전, 김포, 경산 등에 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성인과 센터의 구분은 기존의 건물 사용 여부에 따라 편의적으로 구분하는데, 이 역할은 동일하다. 경산 지역 친교공단에 위치한 이슬람啡원(마스jid)는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한다. 한국 이슬람 성원들은 모두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회중앙회의 소유이다. 이주민들의 주거 공간이나 근무지 등에 60여개의 기관이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시아계 무슬림이 결혼이민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일관된 이주민 지원 활동을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주민의 외국인 가정, 학교, 환경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이슬람啡원(마스jid)은 이주노동자들이 운동하는 공간이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이슬람啡원(마스jid)은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한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이슬람啡원(마스jid)은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한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이슬람啡원(마스jid)은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한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이슬람啡원(마스jid)은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한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이슬람啡원(마스jid)은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한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이슬람啡원(마스jid)은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한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운동하는 공간으로, 이슬람啡원(마스jid)은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도 한다.

대구 성서공단 인근에 위치한 이슬람啡원은 평균 300명 이상이 모인다고 한다. 축전동의 한 가운데 위치한 파리스탄인 이슬람啡원의 경영은 신앙접견과 함께 할랄푸드(신의 이름으로)라는 기도를 드린 후 짐승의 경동맥을 단칼에 잘라 도살한 고기를 가리키며,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잡은 고기를 판매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없는 할랄푸드를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공단 주변에 형성된 ‘아시아 마트(Assia Mart)’는 무슬림을 비롯한 국경을 초월한 이주민들의 네트워크 활용 공간이다. 자신들의 동질성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라는 의식’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존재에 대한 욕망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21)

2. 이슬람교의 유입에 따른 종교지형의 변화

대구지역에서 살아가는 무슬림들은 대체로 이슬람적 가치를 지키며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분구에서 일상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무슬림조차 이주한 곳에서는 신앙생활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주 무슬림들에게 개인적인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것은 이슬람啡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생활이다. 무슬림들에게 개인예배의 실행 유무는 신앙의 척도가 된다. 대구가톨릭대에 학부생으로 대학 중인 이슬람교 246명 중 35명이 학생이 무슬림인데22), 이들은 대체로 개인예배를 드린다고 응답하였다.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경우, 국제처 및 국제학생센터, 그리고 교목처 등의 협조로 무슬림 유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최근에 마련하기도 하였다.

20) 조희선·김대성·안정국·오종진·김효정.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 『중동연구』 27-2, 2008, pp.92-93.
21) 엄한진, 「한국사회 이주무슬림 공동체의 형성과 성격」, 『종교문화연구』14, 2010, p.17.
대구 이슬람사원이 인접한 괴산초등학교에서는 무슬림 학생 5명을 위해서 돼지고기와 달걀을 콩으로 바꿔 별도로 급식 식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해나하면 이 학생들이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 등 일부 음식을 먹지 않아 굴이나 볼도의 도시락을 씹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24)

한편, 대구광역시는 무슬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2016년 상반기에 할랄 한식당을 개설할 예정이며, 대구 지역 내 관광호텔에 무슬림을 위한 세정실과 기도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Ⅳ. 대구지역 종교지형에 대한 전망

대구지역은 다양한 이주민의 유입으로 전통적 종교지형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무슬림의 증가로 인한 이슬람사원의 설립과 할랄식품점의 증가를 비롯하여, 기존 선주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슬람교에 대한 인식은 대구지역에서의 종교지형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이슬람교와 무슬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9.11 테러 때는 동방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 미국중심의 교육, 미국문화의 영향으로 거의 미국 중심의 글로벌 인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국의 지식인들과 여론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슬람교에 대한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태도와 시각에 매몰되지 않고, 이슬람권의 생각과 무슬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한국인의 IS 가입 및 IS의 프랑스 테러 등은 이러한 분위기에 또다시 신인견을 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가고 있다.25) 국내 거주하는 무슬림은 대략 13만 5천 명 가량 된다고 한다. 대구광역시에서는 2012년에 다문화사회와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이민정책을 대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70%로 나타났으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87%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많아지면, 나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3%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무슬림을 비롯한 다양한 이주민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정책적 변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나, 일자리와 같은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 이태원지역에서 보여주었던 이슬람교의 증가에 대해서 기존의 종교단체들이 보여주었던 냉소적 우관심 전략이 대구지역에서는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현상이 개신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신교의 이러한 응직인은 교회의 양적 성장이 멈춘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써 무슬림을 외부의 적으로 생각한 후, 교회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26) 2015년 11월에 조사가 끝난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에 대구지역 종교인구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수 있었으나 현재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무슬림의 증가에 따른 대구지역에서의 종교지형의 변화는 개신교의 대응이 중요한 곳을 하이라 전망되고 있다.

24) 《세계일보》 2015.9.22. 「대구 죽전초 이슬람권 학생 맞춤형 급식」 참조.
<참고문헌>

『경상도지리지』
『고려사』『자리지』
『삼국사기』권8, 『신라본기』
대구직할시, 『대구의 향기』, 1982.
대구대학교사학전문대학원『대구문방 백년사』, 1986.
대구시사학관위원회, 『대구시사』제1권 통사, 1995.
김효정, 『한국이주 남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집단화-남아시아 무슬림 애스닉 집단화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18-3, 2008.
송도영, 『국내 무슬림 이주자들의 생활양역과 조교적 성격-서울 이태원 출입 무슬림의 사례』, 『한국이슬람학회논총』24-2, 2014.
------------- 「한국 내 이슬람(향교) 음식의 소비방식과 공급체계에 대한 문화적 해석」, 『한국중동학회논총』32-1, 2011.
안정국, 『국내이주 무슬림의 현황과 문화적 갈등』, 『한국이슬람학회논총』22-1, 2012.
------------- 「한국 이주 민주사회에 여성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한국중동학회논총』30-1, 2009.
------------- 「한국이주 동남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사회적 성격」, 『한국중동학회논총』29-1, 2008.
엄현민, 『한국사회 이주인 종교공동체의 실제와 성격』, 『종교문화연구』14, 2010.
오종진, 『중앙아시아 코슬림(한국 이주 무슬림 2세)의 정체성과 생활세계에 대한 연구』, 『중동연구』29-1, 2010.
------------- 「한국 이주 중앙아시아 무슬림의 현황과 조직화-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출신 무슬림을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18-3, 2008.
------------- 「한국사회에서의 중앙아시아 이주 무슬림들의 혼인과 정착」, 『한국중동학회논총』30-1, 2009.
유일상, 『한국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그들이 살아가는 도시와 생활세계』, 『한국의 다문화 공간』정문학, 송도영 논서, 현암사, 2012.
유정영, 『한국 무슬림에 대한 연구 실태조사』, 『중동연구』2, 1982.
------------- 「중동 무슬림의 한국 이주에 대한 인식분석: 이란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34-1, 2013.
이광수, 『구슬자를 통해 본 방글라데시인 이주 노동자 삼켜뇌의 한국 사회적응에 미친 요인』, 『코기도』72, 2012.
이노미, 『내국 외국인 소수집단 거주지의 갈등과 연대-이태원 무슬림 거주지들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21-1, 2011.
이수진, 『조선초기 군현체 정비에 대하여』, 『영남사학』1, 1971.
이소영·누르보슨, 「한국 이슬람권 이주민의 갈등분석-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무슬림을 중심으로」,『인문과학연구논총』35-1,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이진구, 「다문화시대 한국 개신교의 이슬람 인식: 이슬람포비아를 중심으로」,『종교문화비평』19, 2011.
이혜경, 「외국인 이주자의 생활공간에 대한 연구: 주거, 소비, 여가공간을 중심으로」,『한대사회와 다문화』2-1, 2012.
이희수, 「9.11 테러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인식 변화」,『한국이슬람학회논총』16-1, 2006.
--------, 「이슬람과 한국문화」, 청아출판사, 2012.
이희수·조영주, 「무슬림 이주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이슬람 문화 실천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한국이슬람학회논총』23-1, 2013.
-------------, 「한국의 무슬림 이주민들의 한국생활 적응방식과 신앙생활 조사 분석」,『한국중동학회논총』33-1, 2012.
장준희, 「한국의 이슬람 문화권 민속연구 경향 연구」,『한국종교학회논총』30-3, 2010.
전희영·조희선, 「이슬람의 가상공간 인터넷과 e-무슬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한국중동학회논총』32-3, 2012.
정찬근·김용배, 「무슬림 이주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슬람 문화몰입이 자녀교육 형태에 미치는 영향」,『한국중동학회논총』33-3, 2013.
조현미,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한국중동학회논총』12-5, 2006.
조희선, 「한국 이주 아랍 무슬림의 혼인과 정착, 그리고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한국중동학회논총』30-1, 2009.
--------, 「한국이주 아랍 무슬림의 현실과 조직화」,『한국중동학회논총』29-1, 2008.
조희선·김대성·안정국·김효정,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연구수행을 위한 모델 연구」,『한국이슬람학회논총』18-1, 2008.
-------------,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중동연구』27-2, 2008.
-------------, 「한국이주 무슬림의 혼인현황과 정착과정연구」,『지중해지역연구』11-3, 2009.
조희선·김대성·안정국·강기용, 「고교수,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연구수행을 위한 모델 연구」,『한국이슬람학회논총』18-1, 2008.
-------------,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중동연구』27-2, 2008.
-------------, 「한국이주 무슬림의 혼인현황과 정착과정연구」,『지중해지역연구』11-3, 2009.
조희선·김대성·안정국·강기용, 「고교수,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연구수행을 위한 모델 연구」,『한국이슬람학회논총』18-1, 2008.
-------------, 「한국사회 이주 무슬림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중동연구』27-2, 2008.
-------------, 「한국이주 무슬림의 혼인현황과 정착과정연구」,『지중해지역연구』11-3, 2009.
지종화, 「다문화사회와 한국 무슬림의 적응과 대응」,『한국이슬람학회논총』21-2, 2011.
한현미, 「한국연구총서 제32집<고려지방제도의 연구>」, 한국연구원, 1997.
허창수, 「한국 내 인도네시아 이주민 공동체 다문화지도」,『교육인문학연구』12-2, 2009.
황병하, 「무슬림의 한국문화수용 정도와 향후과제-이슬람권 유학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한국이슬람학회논총』18-1, 2008.
《세계일보》, 「대구 죽전초 이슬람권 학생 맞춤형 급식」, 2015.9.22.
《연합뉴스》, 「이주민 단체들 파리 테러 때문에 경찰 감시 심해져」, 2015.11.25.
KBS1 TV 특집다큐멘터리, 「18억, 이슬람 시장이 뜬다」(3부작), 2015.12.5~13.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http://www.seongseo.or.kr).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2015. 12. 18
김태완・조윤용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 연구의 배경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015년 1월 기준 약 174만 명 (주민등록 인구수의 3.4%)
출처: 형정자치부 (2015)

<table>
<thead>
<tr>
<th>Year</th>
<th>2011</th>
<th>2012</th>
<th>2013</th>
<th>2014</th>
<th>2015</th>
</tr>
</thead>
<tbody>
<tr>
<td>외국인 주민수</td>
<td>1.27</td>
<td>1.41</td>
<td>1.45</td>
<td>1.57</td>
<td>1.74</td>
</tr>
<tr>
<td>주민등록 연구수</td>
<td>50.52</td>
<td>50.73</td>
<td>50.85</td>
<td>51.14</td>
<td>51.33</td>
</tr>
<tr>
<td>비율 (%)</td>
<td>2.5</td>
<td>2.8</td>
<td>2.8</td>
<td>3.1</td>
<td>3.4</td>
</tr>
</tbody>
</table>

• 대학 내 학위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55,739명으로 전국 대학 재학생의 1.5%
출처: 교육부 교육기본통계 (2015)

외국인유학생, 55,739
1. 연구의 배경

- 인종과 민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위한 대학 내 토양이 마련되지 않은 재 유행성 유치
  - 경제적 여건과 의무, 연어에 따른 편견 (김민경, 2010)
  - 영어권과 비영어권 학생의 차별 (정태경, 2008)

-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될 한국의 미래세대
  -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논의 필요
  - 대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 방향과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에 도움

2. 이론적 논의: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은 각기 상이한 지표로 측정되어 온
  - 다문화 일반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 (김진구, 2008)
  - 사회적 거리감 (정영희, 2014)
  - 사회적 거리감과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 한국인 인성 조건 (임도영, 2011)
  - 이주민에 대한 편견 (임현숙, 2011)
  - 이주민에 대한 의존성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지 등 (장영숙, 2011)

- 대학생 다문화수용성 확도 개발 연구는 문화다양성 차원에서의 접근
  - 인지, 행동 차원의 다문화 따라 적용 (박해숙, 2013)
  - 문화다양성에 대한 포괄적 접근, 이주민 뿐만 아니라 성, 계층, 민족, 세대 등 다양성에 대한 수용의 정도 (박해숙, 2013)
2. 이론적 논의: 대학생 다문화수용성의 영향요인

-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다문화수용성 요인 구성체계]


3.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단일차원의 척도는 무엇인가?
2.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4. 문항개발

- 황성욱 외(2014)의 다문화수용성 적도 개발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채택
  -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 한국국적에 관련된 국민 정체성
  -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 이주민에 대한 차별
  - 이주민에 대한 거부 및 화피 정서
  - 이주민과의 교류 행동에 대한 의지
  - 이주민의 일방 동화
  - 이주민과의 양방 동화

- 2015년 5월 최종문항 검토회의와 3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설문이 확정

5. 자료의 수집

-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2015. 6. 1~10)
  - 총 207명의 대학생으로부터 설문지 회수

- 데이터 정화(purification) 과정을 거친 최종 190개 표본 확보
  - 무응답과 무응답이 5개의 케이스 파기
  - 다변량독립성을 가진 케이스와 기준치($q^2=61.098(df=36)$, p<.001) 이상의 값을 가진 12개의 케이스를 파기
  - 각 문항응답의 정규성, 선형성, 다중공선성을 검증
6. 분석결과: 응답자의 특성

<table>
<thead>
<tr>
<th>성별</th>
<th>해외거주</th>
<th>외국인친구</th>
<th>다문화/인질경호</th>
<th>유학/연수경험</th>
</tr>
</thead>
<tbody>
<tr>
<td></td>
<td>구분</td>
<td>부도(%)</td>
<td>구분</td>
<td>부도(%)</td>
</tr>
<tr>
<td>남학생</td>
<td>71(37.4)</td>
<td>23(12.1)</td>
<td>73(40.5)</td>
<td>55(28.3)</td>
</tr>
<tr>
<td>여학생</td>
<td>113(62.6)</td>
<td>107(57.9)</td>
<td>113(62.5)</td>
<td>102(55.3)</td>
</tr>
<tr>
<td>총계</td>
<td>184(100.0)</td>
<td>130(100.0)</td>
<td>186(100.0)</td>
<td>157(100.0)</td>
</tr>
</tbody>
</table>

6. 분석결과: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척도개발

• 36개 문항에 대한 EFA 실시
  • 직교회전(varimax)에 의한 주성분 분석
  • 적재지 0.5 미만, 득 이상의 요인에 대해 적재지 0.4 이상의 문항 제외
  • KMO 수치는 0.82, Bartlett 구형성 검증 결과는 $\chi^2=2225.34(df=351)$
  • eigen-value 1.0 이상 기준, 27개 문항 8개 요인 추출(총분산 69.23)

• 8개 요인에 대한 CFA 실시
  • 최대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한 CFA
  • 모형 적합도, 수정지수 참고하여 수정
  • 2개 요인, 10개 문항 제외
  • 적합도

<table>
<thead>
<tr>
<th></th>
<th>CMIN</th>
<th>RMSEA</th>
<th>GFI</th>
<th>AGFI</th>
<th>NFI</th>
<th>TLI</th>
<th>CFI</th>
<th>RMR</th>
<th>PFI</th>
<th>PCEI</th>
</tr>
</thead>
<tbody>
<tr>
<td>최고모형</td>
<td>0.059</td>
<td>0.070</td>
<td>0.808</td>
<td>0.754</td>
<td>0.756</td>
<td>0.823</td>
<td>0.693</td>
<td>0.715</td>
<td></td>
<td></td>
</tr>
<tr>
<td>수정모형</td>
<td>0.042</td>
<td>0.046</td>
<td>0.914</td>
<td>0.871</td>
<td>0.859</td>
<td>0.954</td>
<td>0.966</td>
<td>0.674</td>
<td>0.724</td>
<td></td>
</tr>
</tbody>
</table>
6. 분석결과: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척도개발

- 최대우도 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한 CFA

<table>
<thead>
<tr>
<th>요인</th>
<th>정의</th>
<th>경계</th>
<th>χ²</th>
<th>AVE</th>
<th>CFR</th>
</tr>
</thead>
<tbody>
<tr>
<td>기존 탐색 연구</td>
<td>다른 동종 동물이 악마에 생소한 환경을 가르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없다.</td>
<td>0.79</td>
<td>0.85</td>
<td>0.84</td>
<td>0.57</td>
</tr>
<tr>
<td>유래 경험</td>
<td>제3자나, 감정작용, 간부상황, 성감, 경제적, 사회적</td>
<td>0.77</td>
<td>0.77</td>
<td>0.77</td>
<td></td>
</tr>
<tr>
<td>비중</td>
<td>저계획의 사회에서, 분열의 원인에 대해 많은 것을 피하는 것은 있다.</td>
<td>0.70</td>
<td></td>
<td></td>
<td></td>
</tr>
<tr>
<td>문화적 배경</td>
<td>나라는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td>
<td>0.81</td>
<td></td>
<td></td>
<td></td>
</tr>
<tr>
<td>영향</td>
<td>나는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td>
<td>0.69</td>
<td>0.74</td>
<td>0.75</td>
<td>0.50</td>
</tr>
<tr>
<td>자발</td>
<td>나라는 문화적 배경을 주는 것이 있다.</td>
<td>0.41</td>
<td></td>
<td></td>
<td></td>
</tr>
<tr>
<td>정품화</td>
<td>나는 유리와의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td>
<td>0.41</td>
<td>0.64</td>
<td></td>
<td></td>
</tr>
<tr>
<td>적용</td>
<td>나는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td>
<td>0.01</td>
<td>0.00</td>
<td>0.64</td>
<td></td>
</tr>
<tr>
<td>경직</td>
<td>나는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td>
<td>0.97</td>
<td></td>
<td></td>
<td></td>
</tr>
<tr>
<td>자발</td>
<td>나는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td>
<td>0.90</td>
<td></td>
<td></td>
<td></td>
</tr>
<tr>
<td>정품화</td>
<td>나는 유리와의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td>
<td>0.69</td>
<td></td>
<td></td>
<td></td>
</tr>
<tr>
<td>적용</td>
<td>나는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td>
<td>0.03</td>
<td></td>
<td></td>
<td></td>
</tr>
<tr>
<td>정직</td>
<td>나는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td>
<td>0.10</td>
<td></td>
<td></td>
<td></td>
</tr>
<tr>
<td>자발</td>
<td>나는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td>
<td>0.33</td>
<td></td>
<td></td>
<td></td>
</tr>
<tr>
<td>정품화</td>
<td>나는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td>
<td>0.36</td>
<td></td>
<td></td>
<td></td>
</tr>
<tr>
<td>적용</td>
<td>나는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td>
<td>0.7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CFR(composite factor reliability) 0.7 이상,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0.5 이상

6. 분석결과: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 모색

- 집단 별 다문화수용성 점수의 차이

<table>
<thead>
<tr>
<th>집단구분</th>
<th>N</th>
<th>평균점수</th>
<th>표준편차</th>
<th>점수차이 편차</th>
<th>T value</th>
</tr>
</thead>
<tbody>
<tr>
<td>남학생</td>
<td>71</td>
<td>3.82</td>
<td>0.36</td>
<td>-0.02</td>
<td>-0.22</td>
</tr>
<tr>
<td>여학생</td>
<td>119</td>
<td>3.64</td>
<td>0.31</td>
<td>-0.02</td>
<td>-0.22</td>
</tr>
<tr>
<td>해외가수</td>
<td>23</td>
<td>4.05</td>
<td>0.46</td>
<td>-0.25</td>
<td>2.44**</td>
</tr>
<tr>
<td>학과전공</td>
<td>167</td>
<td>3.80</td>
<td>0.53</td>
<td>0.25</td>
<td>2.44**</td>
</tr>
<tr>
<td>외래인</td>
<td>77</td>
<td>3.97</td>
<td>0.49</td>
<td>-0.23</td>
<td>2.44**</td>
</tr>
<tr>
<td>외국인 전공</td>
<td>113</td>
<td>3.74</td>
<td>0.53</td>
<td>0.23</td>
<td>2.44**</td>
</tr>
<tr>
<td>심리학 전공</td>
<td>55</td>
<td>3.85</td>
<td>0.52</td>
<td>0.23</td>
<td>2.44**</td>
</tr>
<tr>
<td>수학전공</td>
<td>123</td>
<td>3.84</td>
<td>0.52</td>
<td>0.23</td>
<td>2.44**</td>
</tr>
<tr>
<td>영문학전공</td>
<td>28</td>
<td>3.85</td>
<td>0.45</td>
<td>0.14</td>
<td>1.44</td>
</tr>
<tr>
<td>예학전공</td>
<td>162</td>
<td>3.81</td>
<td>0.54</td>
<td>0.14</td>
<td>1.44</td>
</tr>
</tbody>
</table>

* p < 0.1, ** p < 0.05, *** p < 0.01

- 다문화수용성 점수와 타변인 간 상관관계

| 구분 | 다문화수용성 | 영향 | 해외가수공기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영향</td>
<td>0.04</td>
<td>1.00</td>
<td></td>
</tr>
<tr>
<td>해외가수</td>
<td>0.12</td>
<td>0.11</td>
<td>1.00</td>
</tr>
<tr>
<td>유의수치</td>
<td>0.17</td>
<td>0.22</td>
<td>0.03</td>
</tr>
</tbody>
</table>

* p < 0.1, ** p < 0.05, *** p < 0.01
7. 결론 및 논의

다문화의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는 6개의 대표 문항 도출

<table>
<thead>
<tr>
<th>6개의 하위개념</th>
<th>최종 문항</th>
</tr>
</thead>
<tbody>
<tr>
<td>어주민에 대한 거부·의기</td>
<td>다른 편에는 종족도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어주민이 사는 것은 실패이다.</td>
</tr>
<tr>
<td>다문화에 대한 개방성</td>
<td>나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위세있는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한다고 생각한다.</td>
</tr>
<tr>
<td>어주민에 대한 차별</td>
<td>나는 어주민들끼리 미안 오면서 자기들의 흥미이나 흥미를 즐기는 것이 대체로 흥미를 즫다.</td>
</tr>
<tr>
<td>경찰 동화</td>
<td>어주민의 자녀는 한국어와 영어에 어니나 혹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먹워야 한다.</td>
</tr>
<tr>
<td>어주민에 대한 고경관념</td>
<td>어주민이 놀라운 변호들이 불가능하다.</td>
</tr>
<tr>
<td>성공교육 확지</td>
<td>나는 어주민이 나의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이 없다.</td>
</tr>
</tbody>
</table>

-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 해외거주 경험(30일 이상)
  - 외국인 친구의 유무
  - 유학과 해외연수를 가하는 의향

8. 마치며

- 학술적 의의
  -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대학생을 대상 다문화수용성 척도를 개발
  - 다문화수용성의 측정이나 변화예측을 위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
  - “해외유학과 연수 의향”의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로의 해석

- 실천적 의의
  - 대학 교육에서의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과 효과 측정
    - 다문화 관련 교육 행사,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캠페인 등의 다문화 교육 콘텐츠의 효과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척도를 이용하여 검증
    - 다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에 있어서 자기효능감과 동기에 주목할 필요
참고문헌


김용철 (2003) "한국어를 나 Honest to God 색다른 한국어를 배우는". 언어학, 12, 73-81.


다문화 공간에서의 언어와 정체성

1. 다문화사회와 언어 (이재승/부산대학교)
2. 소련에서 광주 한글학교 설립에 관한 연구 (지충남·양명호/전남대학교)
3.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 조사 연구 (김혜련/전남대학교)
다문화사회와 언어

이재승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간의 변경 또는 언어변이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언어사용은
대화를 함께하는 상대방에 따라서,
대화의 주제에 따라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World Englishes

Singapore, India, USA, UK etc...

“successful multicompetent speakers, not failed native speakers”
(Cook, 1999)
“public domains VS private domains”
(Messing, 2007)
의사전달 능력이 있다는 것은 구사할 수 있는 언어적 목록이 풍부하다는 것이며, 언어적 목록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험과 활동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speech community”
(Gumperz, 1982)
직업, 종교, 취미 등 다양한 언어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면, 각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표현, 구조 등을 습득하게 되므로, 언어발달은 사회적인 과정이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체성이 나타난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기도 한다. 내가 만든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형태는 의사소통이다.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은 본인들의 문화적 배경에 따른 의사소통방식의 기준으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잘못 해석할 수 있으므로 혼란과 갈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시사점

정체성  공생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http://www.bfwc.or.kr](http://www.bfwc.or.kr)
소련에서 광주 한글학교 설립에 관한 연구

지충남 (전남대) · 양명호 (전남대)

목차

Ⅰ. 서론
Ⅱ. 고려인 이주와 언어환경
Ⅲ. 광주한글학교의 설립과 운영
Ⅳ. 광주 한글학교 운영상의 문제점
Ⅴ. 결론

1. 서론

1) 문제제기

한민족 디아스포라 (Diaspora)는 경제적 생존과 독립투쟁, 일제의 강제징집과 징용 등을 이유로 한반도를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였다. 1863년 가난에 시달리던 함경도 북단의 농민 13가구가 살 곳을 찾아 두만강을 건너 간도지역으로의 이주를 시작으로 러시아 연해주와 중국 만주, 1903년 하와이 이주 노동, 1910년부터는 일제에 의한 만주지역과 일본으로의 강제징용과 노동, 1945년 해방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미국, 독일, 남미, 일본 등으로의 노동 이주와 자율적 이민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조선인의 초기 이주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유발되었다. 연해주와 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촌을 세웠으며, 항일독립운동의 근거지를 제공하기도 했다. 1)

2015년 현재 재외동포는 194개국에 7,184,872명에 이른다. 2)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에는 러시아 (Russia) 171,601명, 카자흐스탄 (Kazakhstan) 103,546명,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171,000명 등 3개국 고려인은 445,907명으로 나타났다. 3) 1991년 12월, 발트 3국의 독립을 시작으로 소련 연방이 붕괴되자 우크라이나(Ukraine),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Kyrgyzstan) 등에 살고 있던 고려인들은 12개 독립국가의 출현으로 새로운 국가 및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고려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어에는 능통했지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거주 국가의 언어를 잘 알지 못하였다. 또한 1938년부터 소련이 소수민족들의 ‘민족학교’ 폐쇄와 ‘소비에트(Soviet)’ 학교의 재조직화 정책으로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배울 수 없게 되었다. 4) 그러하여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한 연해주 고려인 후손들의 다수는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채 생활하였다.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한인들의 한민족 정체성을 판단하는 척도는 민족의 전통 문화나 한글의 인지 여부 등이다. 특히, 언어는 그 민족의 의식 및 문화를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1) 임채완, 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울 아카데미, 2006, 113-115쪽.  
2) 외교부, 『2015 재외동포현황』, 2015, 14쪽.  
3) 『동아일보』, 『차별 이겨낸 카제스키, 유라시아 협력의 주역으로』, 2015, 8. 10, A8면.  
4) 임채완, 『소련 한인사회의 현황과 남북한에 관한 태도』, 『통일문제 학술강연회』, 전남대 동일문화연구소, 1991, 8쪽.
이러한 사정이 광주전남 지역에 알려지자 광주일보와 북한연구학회를 중심으로 ‘광주 한글학교’를 세우기로 하고 기금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광주전남의 학자, 기업인, 언론사 등의 협력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1991년 8월, 러시아 연해주 2곳, 카자흐스탄 2곳, 우즈베키스탄 2곳 등 총 6개 지역에 한글학교를 설립했으며, 현지에 한국인 교사를 파견하여 고려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광주 한글학교가 설립된 지 24년이 흐른 시점에서 연해주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광주 한글학교의 발자취는 광주 한글학교에서 발자취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Tashkent)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져버렸다. 타슈켄트의 한글학교는 현재 학교명을 ‘세종학당’으로 변경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이 발간한 『2014년 재외동포교육 현황』에 따르면 1991년 광주일보와 북한연구학회가 설립한 6개 한글학교에 관한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의 학교 폐쇄 또는 학교 명칭의 변경이 있었지만 광주 한글학교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성금을 취합하여 고려인에게 한글교육을 시키고자 설립되었던 교육기관 중 하나였다. 광주 한글학교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어 학교가 설립되었지만 몇 년간만 존립하고 5개 학교는 폐쇄되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광주 한글학교의 설립과정과 문제점을 규명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첫째, 문제제기와 선행연구의 검토; 둘째, 재외동포 교육기관의 현황; 셋째, 고려인 이주와 언어 환경의 고찰; 넷째, 광주 한글학교의 설립 배경과 운영; 다섯째,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2) 선행연구

2014년 기준, 116개국에서 1,918개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러시아 83개의 한글학교 중 이르크츠크 3개, 하바로프스크는 4개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 68개, 카자흐스탄에 59개의 한글학교가 있다.5)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에게 한국어학습과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및 해외 공관을 통해 지원받아 운영되어 있다. 제외한 한글학교는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에 따르면 1991년에 설립된 6개 학교 중 남한 2곳, 중남미 3곳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6)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에게 한국어학습과 관련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 및 해외 공관을 통해 지원받아 운영되어 있다. 제외한 한글학교는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에 따르면 1991년에 설립된 6개 학교 중 남한 2곳, 중남미 3곳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외동포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교육정책, 한글학교의 운영실태 및 교재에 관한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는 교육방향, 개선방안, 교육과제로 세분할 수 있다. 교육방향에 관한 연구는7)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배경과 학습욕구를 고려한 다문화적 민족교육의 필요, 유의미한 학습 자료의 제공과 활용, 지역적 특성의 고려 등을 주장하였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민족정체성 함양과 관련성을 갖는 교육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8) 제외동포들의 한국어학습과 관련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들로 분류될 수 있다.

---

5)『광주일보』, 「재소한인 거주지역에 모국어 학교를 세우자」, 1991. 4. 20, 23면.
6)재외동포재단, 『2014 재외동포 교육기관현황』, 2014. 3월, 261-287쪽.
이 교육 철학과 교육정책의 제도와 법규의 보완, 한글교육과 정부차원의 정책적 연계사업의 확장을 제안하였다. 이들의 주장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글교육의 과제와 관련하여 임영상은 CIS 대학의 한국학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한국학의 특화, 표준화된 한국학 강좌를 통한 거점대학의 육성, 현지 실정에 맞는 교과서 개발과 도서의 보급, 지원기관들의 역할 분담을 제안하였다.9)

다음은 한국어 실태 및 교재를 분석한 연구이다. CIS 지역의 한국어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10) 공동적으로 고려인들의 한국어 사용 실태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시기별로 한글의 활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특히 읽기와 쓰기를 전혀 할 수 없는 고려인의 비율이 약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재소 고려인의 언어실태를 분석한 명드미트리에 따르면 1989년 고려인은 438,650명으로 216,811명(49.1%)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인식하고 있지만, 219,953명(50.1%)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인정했으며, 나머지 고려인들은 현재 거주국가의 언어를 모국어로 인식하였다. 문제는 점점 세대로 갈수록 한국어를 사용하는 고려인의 빈도가 낮아지고 있는 관계로 수십 년 후에는 CIS 고려인 중 다수가 모국어를 완전히 잊어버릴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고려인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시설, 교사의 배치 및 양성은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한 핵심이다.

CIS 지역의 한국어 교재에 관한 연구이다.11) 조현용은 사할린 지역의 언어 환경과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김인숙 또한 한글 교재의 교과내용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재욱은 재외한글학교의 교재를 파악한 결과, 대륙별·수준별 맞춤형 교재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결국 이들의 연구는 한글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 한글학교의 운영실태, 교재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한국어의 전반적인 교육문제, 다시 말해 한글교육에 있어 교사, 교재,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 한글실태,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연구 또한 기지적 차원에서 보면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미세적 차원에서 이 연구는 1990년부터 광주전남의 신문사, 학자, 기업인, 관공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들이 학교 건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들을 위해 한글학교를 세웠던 그 과정과 변화 추이, 사시점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 될 수 있다.

2. 고려인 이주와 언어 환경

1) 고려인 이주

고려인의 러시아 이주는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민(棄民)의 역사이다. 고려인은 조선의 귀 근과 압제, 그리고 망국이 낳은 유산으로 조선 땅에서 살 수 없어 연해주(沿海州)로 이주한 유민(流民)을 고려인으로 불렀다. 연해주인도 동북방향으로 전개되는 극동지역이다. 초기 고려인의 연해주 이주는 지리적 근접성, 광활한 농토, 기근의 해소, 일제의 착취로부터 도피 등과 상관성을 갖고 있다.

연해주 고려인의 이주는 4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주는 19세기 후반부터의 이주이다. 조선왕조의 위기와 탄핵, 자연재해로 인한 대기근으로 한반도 이북지역의 유민들이 두만강을 건너 가는 것이 기간이다. 그리고 1910년 일본의 강제병합으로 대한제국이 식민지화되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위한 정치적 맹세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1937년의 강제이주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고려인의 일본 간첩활동 방지를 위해 스탈린(I. Stalin)이 강제이주를 단행하였다. 고려인은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였다. 고려인들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중앙아시아 우스투베(Usttobe), 알마티(Almaty), 크잘오르다(Kzyl Orda), 카라간다(Karaganda), 치르치크(Chirchik), 타슈켄트(Tashkent), 시르다리야(Syr Darya), 나보이(Nawoiy), 아스트라한(Astrakhan) 등의 지역에 분산 배치되었다. 세 번째 이주는 1953년 스탈린(I. Stalin)의 사망 이후로 거주지 제한의 해제로 고려인들 중 일부는 중앙아시아에서 소련 본토 전역으로 이주하였다. 네 번째는 소련의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족주의의 발현과 강화로 고려인들이 연해주로 재이주하였던 시기이다.

한편 연해주 지역에서 고려인의 초기 집거지는 지신허(地新墟)는 1863년 이후 고려인들의 정착 거주지 가운데 규모가 큰 마을이었다. 지신하는 연해주 남쪽지역에 위치한 최초의 고려인 마을로서 고려인 사회의 중심이자 발전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우수리지역의 연해주 지역(highland)에도 고려인들이 집거지를 형성하여 생활하였으며, 1914년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도 약 6,3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란촌을 건설하기도 했다. 연해주 지역에 고려인의 집거지는 형성된 것은 이주민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었다. 예컨대 1926년 고려인은 162,366명이었으며, 1932년에는 약 190,600명으로 증가하였다. 고려인과 만주인의 연해주 지역의 거주 증가로 경제적 지도가 부족하여 소련은 그 해결책으로 토지를 경작할 수 없었던 고려인과 만주인을 대상으로 하바로프스크(Khabarovsk)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그 결과 1928년부터 1930년까지 토지가 없었던 고려인 2,922명이 하바로프스크로 이주하였다. 소수 고려인의 하바로프스크 지역으로의 이주는 1937년 강제이주의 전초전이었다.

스탈린은 레닌(Lenin)의 소수민족정책과 달리 '일국사회주의론'에 입각하여 민족 간 평등

13) 고가영, 『우라지역 원로 고려인들의 생애사 연구』, 『역사문화연구』, 3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8, 53쪽.
16) 김호준, 앞의 책, 148쪽.
한 관계를 폐기하고 다른 민족공화국들이 소련에 종속하는 상하관계를 만들어 다민족주의를 부정하고 중앙통제를 강화하였다. 17) 스탈린에 의해 행해진 강제이주정책으로 인해 1937년 9월부터 12월까지 두 번에 걸쳐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고려인 18만여 명이 대규모 강제이주를 당하였다.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은 스탈린 통치 기간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았지만, 1953년 스탈린의 사망 이후 거주이전 조치의 해제와 복권조치를 받았다. 18) 거주지와 관련하여 1956년 전체 고려인의 70% 이상이 농촌에서 집단농장 생활을 했으며, 1970년에는 59.9%가 거주지를 도시로 옮겼다. 그리고 1999년에는 전체 고려인의 86%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19) 거주이전의 제한과 함께 고려인들은 소련 군대에도 입대할 수 없었으며, 국가기관의 취업도 봉쇄당하였다. 스탈린이 고려인을 적성민족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었다.

<표 1> 소련의 고려인 인구 현황(1959~1989년)

<table>
<thead>
<tr>
<th>연도</th>
<th>공화국명</th>
<th>1959년</th>
<th>1970년</th>
<th>1979년</th>
<th>1989년</th>
</tr>
</thead>
<tbody>
<tr>
<td></td>
<td>소련 전체</td>
<td>313,700</td>
<td>357,500</td>
<td>389,000</td>
<td>438,650</td>
</tr>
<tr>
<td></td>
<td>러시아</td>
<td>91,400</td>
<td>101,300</td>
<td>98,000</td>
<td>106,750</td>
</tr>
<tr>
<td></td>
<td>우즈베키스탄</td>
<td>138,500</td>
<td>148,000</td>
<td>163,000</td>
<td>183,100</td>
</tr>
<tr>
<td></td>
<td>카자흐스탄</td>
<td>74,000</td>
<td>82,000</td>
<td>92,000</td>
<td>103,100</td>
</tr>
<tr>
<td></td>
<td>키르기스탄</td>
<td>3,600</td>
<td>9,406</td>
<td>14,481</td>
<td>18,355</td>
</tr>
<tr>
<td></td>
<td>타지키스탄</td>
<td>2,400</td>
<td>8,490</td>
<td>11,200</td>
<td>13,400</td>
</tr>
<tr>
<td></td>
<td>투르크메니스탄</td>
<td>1,900</td>
<td>3,493</td>
<td>3,100</td>
<td>2,800</td>
</tr>
</tbody>
</table>

자료1: 김호준, 앞의 책, 354쪽.


2) 고려인의 언어 환경

언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소통한다는 것은 그 말 속에 담긴 오랜 전통과 역사를 공유하는 것이며, 언어가 다른 집단과 자신을 구별하는 기반이 된다. 특히 문화적으로 한 민족집단은 특

17) 임채완 외,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주루트와 기억』, 북코리아, 2013, 80쪽.
18) 임영상·김상철, 「중앙아시아 3, 4세대 고려인의 의식과 생활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독립국가연합 고려인 사회 연구」, 재외동포재단, 2003, 91쪽.
19) 김경근 외, 앞의 책, 206쪽.
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인종보다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공동체는 정서와 사고에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리적 공동체이며 역사 공동체이기 때문이다.20 이런 이유로 언어는 민족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정 민족의 언어동화는 그 집단의 사회문화적 동화의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이다. 민족어를 통해 한 민족집단의 문화적 가치와 민족 주체성이 세대에 걸쳐 전개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민족어를 어느 정도 하느냐의 문제는 민족문화와 정체성이 세대 간에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21

1917년 러시아혁명 이전, 연해주에는 소련정부가 설립한 공립학교 44개, 고려인들이 만든 민족학교 및 종교기관이 세운 미션학교 등 182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고려인 학교로 보면, 1909년 블라디보스토크 한인학교는 주민들의 의연금으로 게등학교, 세종학교, 신동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동년 10월, 이들 3개교를 합병하여 새로이 '한민학교'를 개교하였다.22 또한 1911년에는 신한촌에 한민학교가 세워졌다. 한민학교는 민족혼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행하며, 당시 연해주의 여러 학교 중 민족교육운동의 중심학교 역할을 수행하였다.23

10월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볼셰비키(Bolshevik) 정권은 사회주의 교육정책을 기반으로 교육과 종교의 분리, 교육과 정치의 결합원칙을 전제하였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정치이념 교육이 포함되면서 소비에트 국민 교육체제는 초등 4년제, 중등 5년제 등 9년제 학제로 개편되었다. 그러하여 대부분의 고려인 학교는 국립 혹은 공립화 되었다.24 이는 소수민족의 전통 언어와 문화를 억제시키고 말살하려는 볼셰비키 정권의 러시아 동화정책과 공산주의 교육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하여 연해주에서 민족학교는 국영화되면서 전제되었다.25 1922년 15개 공학교육으로 구성된 소련 연방의 수립으로 소수민족들의 모국어 사용은 억압되어 갔지만, 혁명 이후 10여 년 동안은 학교에서 고려인의 민족어가 사용이 허용되었다.26 1924년 러시아의 사후부터 소련은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만들기로 결정을 취함에 따라 고려인들은 정책적으로 공교육 부문에서 모국어와 문화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연해주 고려인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했으나, 1937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한 이후부터는 러시아어에 급속하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직면함으로써 모국어를 거의 알아버린 생활을 하게 되었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고려인은 연해주의 조선사범대학을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Kzyl Orda)로 옮겼으나, 1년 후 폐지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의 초중고 학교에서도 한국어 교육은 전면 폐지되었다.27 1938-1939년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고려인 교육 기관은 고려인학교와 혼성학교의 수가 96개였고, 초등학교는 50개, 초중 7년제 학교 32개, 고증 10년제 학교 14개였으며, 고려인 학생은 19,980명으로 나타났다.28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한국어 학교의 폐쇄가 단행되었다. 이는 스탈린의 소수민족 분리정책, 즉 추방정책 그리고 민족교육은 단일 언어를 갖는 단일문

20) 알레한, 앞의 논문, 1999, 381쪽.
21) 윤인진, 앞의 책, 137쪽.
22) 최미옥, 앞의 논문, 60-61쪽.
23) 이상근, 앞의 책, 61쪽.
25) 실제로는 소수민족의 언어를 억제하지도 소련은 1921년 제10차 공산당 대회에서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정경택, '중앙아시아 6개국의 언어 정책과 러시아 연방정부의 대응', 엄구호 외, 『중앙아시아 정치·사회·역사 문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303쪽.
26) 고려인 학교가 비록 소련의 공교육 체제로 편입되었지만, 1931-1932년 연해주에는 33,595명의 학생과 380여개의 고려인 학교가 존재하였다. 명월봉, 앞의 논문, 285쪽.
27) 최미옥, 앞의 논문, 61쪽.
28) 명월봉, 앞의 논문, 290쪽.
화로 융화되어야 한다는 방침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실행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모네어를 사용하는 정책으로 인해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 러시아어는 소비에트인(Soviet People)의 언어로 찬양되었으며, 비러시아 공화국에서는 러시아어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언어정책의 배경에는 민족의 결합과 융합(Fusion)을 통해 단일민족으로 만드는 요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공산당의 언어정책의 실행으로 소수민족들은 그들의 민족어를 젊은 자녀세대에게 가르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그러하여 소수민족의 젊은 세대는 민족어를 배우는 데 관심이 없었으며, 오히려 경제적 사회적 신분상승에 도움이 되는 러시아어 및 고등교육에 더 큰 열의를 보였다. 31)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카자흐스탄 전체 국민 평균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인 중 49.4% 정도가 한국어로 모국어로 생각하고 있으며, 고려인 3세와 4세의 경우, 한국어 사용의 비율은 더 낮은 관계로 점차적으로 한국어를 상실해 가고 있었다. 32) 고려인들의 빠른 언어동화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33) 첫째, 모국으로부터 장기간 교류가 차단된 상태에서 남성, 민족에서의 정착; 둘째, 고려인의 인구가 적고 영토적 자유를 갖춘 이차민족 집단(Secondary Ethnic Group); 셋째, 소련에서 소수민족들에 대한 강제적 동화정책의 실행; 넷째, 이주세대의 주요가 3, 4세대로의 변화; 다섯째, 고려인의 빠른 도시화와 높은 인적자원에의 투자를 통한 소련 사회적 전통적인 신분상승을 추구하였다. 특히 고려인의 도시화는 언어동화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소련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전기를 맞았다. 1985년 3월,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등장한 고르바초프(M.S. Gorbachev)는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소련의 대내 개혁을 일삼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대외 개방을 뜻하는 글라스노스트(Glasnost)를 추진하였다. 문제는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고르바초프는 민족문제에 대해 무관심하였다. 그 결과, 민족문제로 인한 갈등은 소련 연방공화국의 운영을 결정할 문제로 부상하였다. 소련 내에서 민족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은 1986년 4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 참사로 인한 우크라이나인들의 피해와 소련체제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동년 12월, 카자흐스탄 대학생들의 반(反) 모스크바 시위였다. 이 두 사건은 소수민족들이 민족의식을 자각한 계기가 되었으며, 각 민족들의 엘리트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민족문제가 대중 사에 확산되면서 미약하던 민족정체성이 급속하게 형성되었다. 여기에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난조로 소련정부의 각 공화국에 대한 통제력이 점차 약화되어 갑에 따라 소수민족들의 격렬한 민족운동이 전개되었다. 34)
각 공화국에서 민족운동의 전개는 고려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1989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한국어 교육열은 고조되어 있었다. 카자흐스탄 카라간다, 크질오르다, 아스타나 등에서 고려인협회를 중심으로 한글학교가 만들어져 한글을 가르쳤다. 〈표 2〉와 같이 1991년 10월 이전까지는 소련의 고려인 단체나 개인이 세운 소규모 한글학교 12개가 고려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표 2> 소련 한글학교 현황(1991년 10월 이전)

<table>
<thead>
<tr>
<th>번호</th>
<th>학교명</th>
<th>지역</th>
<th>설립일</th>
<th>설립자</th>
<th>교원수</th>
<th>학생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날칙 한글문화학교</td>
<td>러시아</td>
<td>1991.09.</td>
<td>염 스베다</td>
<td>2</td>
<td>14</td>
</tr>
<tr>
<td>2</td>
<td>콜샤코브 태권도한글학교</td>
<td>러시아</td>
<td>1991.03.</td>
<td>콜샤코프 합의회</td>
<td>7</td>
<td>210</td>
</tr>
<tr>
<td>3</td>
<td>톨스코 한글학교</td>
<td>러시아</td>
<td>1991.05.</td>
<td>고려인협회</td>
<td>1</td>
<td>18</td>
</tr>
<tr>
<td>4</td>
<td>이르크츠크 한글학교</td>
<td>러시아</td>
<td>1990.12.</td>
<td>이르크츠크 고려인협회</td>
<td>-</td>
<td>-</td>
</tr>
<tr>
<td>5</td>
<td>하바포스크 한글학교</td>
<td>러시아</td>
<td>1989.10.</td>
<td>고려문화센터</td>
<td>-</td>
<td>-</td>
</tr>
<tr>
<td>6</td>
<td>김이스람 한글학교</td>
<td>우즈베키스탄</td>
<td>1990.03.</td>
<td>김 이스람</td>
<td>1</td>
<td>60</td>
</tr>
<tr>
<td>7</td>
<td>카라간다 무궁화한글학교</td>
<td>카자흐스탄</td>
<td>1989.10.</td>
<td>고려인협회</td>
<td>1</td>
<td>12</td>
</tr>
<tr>
<td>8</td>
<td>카자흐스탄 무궁화한글학교</td>
<td>카자흐스탄</td>
<td>1989.10.</td>
<td>고려인협회</td>
<td>1</td>
<td>17</td>
</tr>
<tr>
<td>9</td>
<td>아스타나 무궁화한글학교</td>
<td>카자흐스탄</td>
<td>1989.12.</td>
<td>고려인협회</td>
<td>2</td>
<td>60</td>
</tr>
<tr>
<td>10</td>
<td>알마티 고려말라디오한글학교</td>
<td>카자흐스탄</td>
<td>1984.05.</td>
<td>최영근</td>
<td>2</td>
<td>20</td>
</tr>
<tr>
<td>11</td>
<td>알마티 우리한글학교</td>
<td>카자흐스탄</td>
<td>1991.02.</td>
<td>최영라</td>
<td>1</td>
<td>12</td>
</tr>
<tr>
<td>12</td>
<td>제스까즈간 무궁화한글학교</td>
<td>카자흐스탄</td>
<td>1990.11.</td>
<td>고려인협회</td>
<td>2</td>
<td>32</td>
</tr>
</tbody>
</table>


한편 소련 시절에 고려인들이 한국어를 접할 수 있었던 대중매체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발행한 '레닌기치'였다. 1923년 3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봉'의 제호로 간행되어 고려인 문체, 문학, 역사, 문화, 한국교육 등을 다루었다. 고려인의 강제이주로 크질오르다로 발간지역을 옮겼던 선봉은 1938년 '레닌기치'로 변경하였다. 1991년 1월부터는 제호를 '고려신문'으로 변경하였다. 레닌기치의 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부상한 것은 한글을 아는 고려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따라서 독자의 감소가 예상되었다. 1988년 3월부터 레닌기치의 고려인

35) 임채환, 앞의 논문, 1999, 323쪽.
제작자들은 신문의 4면에 ‘우리말 학습란’을 실어 사라져가는 한국어 재생운동을 추진하였다. 고려인을 위한 또 다른 신문은 1949년 창간된 유즈노사할린스크(Yuzhno-sakhalinsk)에서 발행되고 있는 ‘레닌의 길로’라는 지방신문으로 일주일에 3회 발행하였다.36)

소련의 해체로 중앙아시아에는 민족주의 성향의 5개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이들 5개국은 인종적으로는 터키계와 이란계(타지키스탄)이며, 사용하는 토착어가 비슷하고,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공동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5개 신생독립국들은 정치적·경제적 혼란 속에서 민족 우 선정책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소수민족들에게 대두된 가장 복잡한 문제는 새로운 언어생활이었다. 신생독립국가들이 민족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다수파 토착민족의 언어를 국가 공용어로 선포하였기 때문이다.37) 고려인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은 러시아어 외에도 공화국 내 공식 언어로서 토착민족어, 그리고 민족어를 습득해야 하는 3중언어의 부담을 갖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1991년 문자를 카림문자에서 라틴문자로 바꾸고, ‘국어 공용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카자흐스탄 또한 1989년 카자흐어를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했으며, 카자흐어는 국가 공식어, 러시아어는 민족 간의 의사소통 언어로 규정하였다. 카자흐어 중심의 단일 언어정책이 시행된 뒤, 1993년까지 정부 및 관공서를 비롯한 모든 기관에서 카자흐어를 사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3. 광주 한글학교의 설립과 운용

1) 설립 배경

고르바초프(M.S. Gorbachev)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으로 소련에서는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소수 민족들의 민족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되었으며, 민족 간 갈등을 표출하였다. 그 결과, 소련의 소수민족들은 연방정부에게 더 많은 자치권 혹은 독립을 요구하는 등 소련사회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다. 1987년 7월, 크리미아(Crimea) 타타르(Tatar) 사람들의 귀환운동이 발생하였다. 1989년 1월에는 아르메니아(Armenia)와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민족 간의 분규 발생으로 다수의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38)

이러한 혼란 속에서 고려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소련 내의 민족문제의 등장, 1990년 6월, 한·소의 수교 등의 영향을 받은 고려인 사회는 민족적 자긍심 고취, 민족어와 문화를 살리자는 재생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교체의 부족, 교육시설 확보의 어려움, 가르칠 교사인력의 부족 등의 난제에 부딪혔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정부는 소련과의 수교가 단절된 상황에서 45년 동안 고려인에게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없었다. 한·소 수교 이후 한국정부는 제외동포적 관점에서 고려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고려인 사회의 재생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1990년 12월, 서울에서 ‘제소동포를 위한 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이 전개되어 수많은 책들이 타슈켄트, 알라바타, 하바로프스크의 고려문화센터에 전달되었다. 문제는 이들 책들을 전시할 건물의 도서관이 없는 관계로 거의 사용되지 못했거나 혹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다.39)

한·소 수교를 계기로 국내기업의 소련 및 중앙아시아 진출이 러시아를 이루었으며, 관광객들

36) 『광주일보』, ‘소련속의 고려인: 전남대 임채완 교수 현장답사기(5)’, 1991. 6. 19, 7면.
37) 임영상·김상철, 앞의 책, 92쪽; 허성태·임영언, 앞의 책, 132쪽.
38) 아제르바이잔은 1989년 10월 5일 주권선언을 했으며, 1991년 8월 30일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였다.
39) 『광주일보』, ‘소련속의 고려인: 전남대 임채완 교수 현장답사기(7)’, 1991. 7. 10, 12면.
의 방문이 증가하면서 고려인들은 한국기업에의 취업이나 관광안내 등을 위해 모국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교재와 교육시설이 없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은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북한의 관심은 고려인보다는 재일한인 가운데 조총련계 동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관계로 고려인은 북한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한편 광주 한글학교의 설립 배경을 보면, 1990년 프랑스에 유학 중이던 임채완 교수는 북한으로부터 방명 혹은 탈출한 소련파 및 고려인들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1990년 11월부터 3주 동안 소련의 모스크바, 알마티, 타슈켄트, 이르쿠츠크, 하바로프스크 등 주로 고려인 밀집 지역을 방문하였다. 고려인 관련 조사의 내용은 소련파 연구,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 배경, 언어생활, 의식적 사회 변화, 생산 활동, 대중문화와 예술활동, 자치운동이다. 임채완 교수와 고려인 인사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시설, 교재, 교사가 없다는 말을 고려인들로부터 들었다. 모국어를 배우려는 강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한글에 대한 열악한 고려인들의 언어 환경은 한글 습득의 큰 장애물이었다.

고려인들이 1937년 연해주에서 이 지역으로 강제이주해서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현장답사 통해 알게 된 임채완 교수는 소련 내 한글학교의 설립 필요성을 인지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고려인의 사정을 파악한 임채완 교수는 광주전남의 지역사회가 고려인의 민족도질성 확보 그리고 한글교육에의 열망을 인지하고 협력할 수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광주일보, 김중채 통일원 광주관장, 전남대 교수 등을 만나 고려인들의 참담한 사정을 설명하였다. 그 결과, 참석자들은 다수의 고려인들이 강제이주 이후, 민족문화의 뿌리인 언어 자체가 소멸되어 가지고 있으며, 소련 내 고려인들의 모국어 사용의 동절성 확보를 위한 공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모국어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소련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후속세대의 경우 모국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려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시설과 교재, 교사의 파견 등에 참석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들 문제가 해결된다면 고려인의 모국어 계승이 가능할 것이며, 광주전남지역이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려인의 한글학교 설립을 지원하여 민족도질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지닌 사업이었다.

2) 모금운동 및 현판식

광주일보사와 북한연구회는 광주 한글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먼저 이 사업 추진 주체로 ‘재소한글학교설립후원회(이하 한글후원회)’를 만들었다. 임채완 교수는 소련 내 고려인 한글학교 설립 효과에 대해 첫째, 한글학교가 설립될 경우,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한국이 소련으로의 경제 신출에서 유리한 위치의 점유; 둘째, 민족적 일체감과 긍지의 고취; 셋째, 북한에 대한 한국의 객관적 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의 마련; 넷째, 재소한인 들간의 상부상조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등 4개항을 주장하였다. 재소 고려인들의 집중 거주지역인 타슈켄트, 알마티, 이르쿠츠크, 하바로프스크 등 4개 지역에 한글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그 비용은 ‘고려인 한글학교 교육기금’ 캠페인을 전개하여 충당하기로 했다. 지역 언

41) 광주일보, 앞의 기사, 1991. 4. 20, 23면.
43) 광주일보, 앞의 기사, 1991. 4. 20, 23면.
44) 광주일보, ‘소련속의 고려인: 전남대 임채완 교수 현장답사기(1)’, 1991. 5. 7, 5면.
45) 광주일보, 앞의 기사, 1991. 4. 20, 23면.
론사인 광주일보(사장: 김종태)의 적극적 참여는 창사 39주년 기념사업과 맞물려 있었다. 한글학교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이 <표 3>과 같이 광주일보를 중심으로 1991년 4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개되었다. 당초의 설립기금의 목표액은 5천만 원이었다. 광주전남의 단체장, 기업인, 개인, 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원으로 약 3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또한 한글후원회에 화천기공 500만, 기타 소액기부금 1000만원 등 총 4,500만원을 모금하였다. 1991년 8월 당사 원/달러 환율은 730원으로 모금된 6만 달러로 6개 한글학교의 건물 구입 및 경비로 사용하였다.

<표 3> 1991년 한글학교 설립기금 모금 현황

(단위: 만원)

<table>
<thead>
<tr>
<th>성명</th>
<th>직책</th>
<th>성금액</th>
<th>성명</th>
<th>직책</th>
<th>성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신호</td>
<td>동화그룹회장</td>
<td>100</td>
<td>임철</td>
<td>광주운림동</td>
<td>100</td>
</tr>
<tr>
<td>정용</td>
<td>본한연구학회장</td>
<td>100</td>
<td>오성</td>
<td>연호사</td>
<td>100</td>
</tr>
<tr>
<td>조일</td>
<td>서양학회회장</td>
<td>100</td>
<td>박명</td>
<td>연예포항</td>
<td>100</td>
</tr>
<tr>
<td>김신</td>
<td>전남대 교수</td>
<td>100</td>
<td>고철</td>
<td>광주상공회의소 회장</td>
<td>100</td>
</tr>
<tr>
<td>윤석</td>
<td>주</td>
<td>모아주택사장</td>
<td>100</td>
<td>고철</td>
<td>금광기업회장</td>
</tr>
<tr>
<td>임완</td>
<td>전남대 교수</td>
<td>100</td>
<td>송순</td>
<td>광주운림동</td>
<td>100</td>
</tr>
<tr>
<td>이희</td>
<td>호남대 교수</td>
<td>100</td>
<td>고철</td>
<td>광주상공회의소 대표</td>
<td>100</td>
</tr>
<tr>
<td>김재</td>
<td>통일원 광주북한관장</td>
<td>200</td>
<td>임행</td>
<td>경남문학회장</td>
<td>200</td>
</tr>
<tr>
<td>권광</td>
<td>화천기공 회장</td>
<td>200</td>
<td>김동</td>
<td>광주시장</td>
<td>200</td>
</tr>
<tr>
<td>백인</td>
<td>가문백화점 회장</td>
<td>200</td>
<td>김의</td>
<td>해외순천사 대표이사</td>
<td>200</td>
</tr>
<tr>
<td>김기</td>
<td>남광건설(주) 사장</td>
<td>100</td>
<td>고두</td>
<td>광주광산구</td>
<td>100</td>
</tr>
<tr>
<td>이종</td>
<td>전남도노협</td>
<td>100</td>
<td>김천</td>
<td>무등산관광호텔 대표</td>
<td>100</td>
</tr>
<tr>
<td>김용</td>
<td>무등건설(주)회장</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제소한인을 위한 한글학교 설립기금 모금’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동안 한글후원회는 소련 내 학교 설립의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유학중인 장원창을 1991년 4월 소련으로 파견하였다. 그는 한글학교 설립 예정지인 4개 도시를 방문하여 현지 거주 고려인 및 고려인협회 인사들과 만나 학교 설립의 배경, 위치, 규모, 설립방법 등 세부 추진 상황 등을 협의했으며, 또한 이들 4개 지역의 정부 관계자와도 만나 한글학교 설립에 따른 제반사항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소련에서 한글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첫째, 소련의 안정적인 주택난에 따른 건물 구입의 문제이다. 둘째, 경제체제상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었다. 소련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시점에서 경제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국가소유로 그리고 국가 통제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건물 구입의 제한과 제약이 많았다. 셋째, 아직까지 민간부분이 완화하고 이 부문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제재가 매우 강력하여 한글학교의 설립목적으로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극복해야 할 장애가 많았다. 넷째, 건물계약의 주체를 누구로 내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이 당시에는 외국인의 건물 소유는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현지 고려인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하였다. 다섯째, 열악한 소련의 통신수단이다. 한글학교 설립후엔 전달이 4개 지역에 도착하는데 평균 1-2개월이라는 시일
이 걸렸으며, 회답을 받기까지는 실제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었다.

한글학교의 설립과 관련하여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한글후원회는 하나씩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설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후원회는 1991년 8월, 4개 지역에서 한글학교 설립 관련 현판식을 갖기 위해 세부 일정을 조율해 나갔다. 첫째, 한글학교가 설치 될 각 지역마다 한글후원회가 제시한 설립 목적을 토대로 10~15명의 한글학교 자원교사와 관련자를 추출으로 ‘한글학교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둘째, 고려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타슈켄트 지역에서는 학교의 가칭을 ‘타슈켄트 한겨레한글학교’로 정했다. 이는 소련의 고려인 모두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알마티 지역의 학교는 천산산맥의 이름을 따서 ‘알마티 고려천산한글학교’로 정하였다.ᒡ은 1991년 8월, 4개 지역에서 한글학교 설립 관련 현판식을 갖기 위해 세부 일정을 조율해 나갔다. 첫째, 극동 시베리아의 하바로프스크는 이 지역을 흐르는 아무르 강(Amur River)의 명칭을 따서 가칭 ‘하바로프스 행동한글학교’로 결정했으며, 조선문화센터가 학교 건물의 구입과 계약을 담당하기로 했다.48) 이 외에도 한글학교의 교장은 현지 고려인이 하며, 교사는 한국인 및 고려인 자원봉사자로 구성하였다. 한국인 교사 파견자는 지원자로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9월부터 러시아어 기초 교육을 시켜 보내며, 한글학교의 운영비용으로는 매월 100달러를 송금하기로 했다.

한편 한글학교가 설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고려인의 집거지로 타슈켄트에서 동쪽으로 65㎞ 정도 떨어진 알마니크에도 한글학교를, 그리고 1937년 강제이주의 정착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우스토베 지역에 한글학교의 건립을 요청하였다. 후원회는 고려인 동포들의 한글에 대한 열망을 수용하여 당초 4개의 한글학교에 2개를 추가하였다. <표 4>에 광주 한글학교의 설립 현황을 정리하였다.

---

<표 4> 광주 한글학교 설립 현황

<table>
<thead>
<tr>
<th>설치지역</th>
<th>국가명</th>
<th>학교명</th>
<th>현판식</th>
<th>개교년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타슈켄트</td>
<td>우즈베키스탄</td>
<td>타슈켄트광주한글학교</td>
<td>1991.08</td>
<td>1992.10</td>
<td>우즈베키스탄 수도</td>
</tr>
<tr>
<td>알마니크</td>
<td>우즈베키스탄</td>
<td>타슈켄트한겨레한글학교</td>
<td>1991.08</td>
<td>1992.10</td>
<td>알마니크로 칭함</td>
</tr>
<tr>
<td>알마티</td>
<td>카자흐스탄</td>
<td>알마티고려천산한글학교</td>
<td>1991.08</td>
<td>1992.05</td>
<td>카자흐스탄 구 수도</td>
</tr>
<tr>
<td>우스토베</td>
<td>카자흐스탄</td>
<td>우스토베광주한글학교</td>
<td>1991.08</td>
<td>1992.05</td>
<td>알마티 주 지역</td>
</tr>
<tr>
<td>이르크츠크</td>
<td>러시아</td>
<td>이르크츠크고려한글학교</td>
<td>1991.08</td>
<td>1992.09</td>
<td>러시아 극동지역</td>
</tr>
<tr>
<td>하바로프스크</td>
<td>러시아</td>
<td>하바로프스크흑룡한글학교</td>
<td>1991.09</td>
<td>1992.09</td>
<td>러시아 극동지역</td>
</tr>
</tbody>
</table>

자료4:『광주일보』, 1991. 9. 9. 15면 기사 참조 재작성.

광주전남 지역의 소련 지역 내 한글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재소 고려인협회 및

고려인 사회의 지도급 인사 4명이 서울에서 2주간에 걸쳐 해외동포 모국어 연수교육을 마치고 광주일보를 방문하였다. 김 융토르(Ким Виктор) 타슈켄트 포리투얼 중·고 교장, 김순희 이르크츠크 고려인협회 한글학교 교사, 최미옥 알마니크방송국 한국어담당 아나운서, 최 스웨столь리나 (Цой Светлана) 타슈켄트 사범대교 조문학과 교수 등은 한글후원회 관계자로부터 한글학교 사업의 취지를 설명 들었다. 고려인들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각각의 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기로 결의하였다.49)

과주 한글학교의 건물 매입 및 현판식을 갖기 위해 1991년 8월부터 1개월 간 고려인 집거 도시 6개 지역을 전남대 임채완 교수, 김중채 통일원 광주북한관장, 김준 광주일보 기자 등 한글후원회의 관계자들이 방문하였다. 건물의 계약과 함께 현지의 고려인 교장을 비롯한 다수의 고려인들이 참석한 후 현판식을 거행하였다.50) 이렇듯 광주전남의 뜻있는 인사들 중 중심으로 소련 지역에 한글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의 실시, 한민족 동질성의 확보 및 전통문화의 계승에 기여하게 되었다.

3) 한글학교의 운영

소련에 설립된 6개 광주 한글학교는 기본적으로 고려인의 집거지가 형성된 곳이며, 한글을 배우려는 고려인들의 의지가 결합하여 세워졌다.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는 수도이며, 알마니크는 근거리에 위치한 고려인 집거지이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는 수도이며, 우스토베의 경우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33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1937년 강제이주 후, 고려인의 첫 정착촌이 형성된 지역이다. 러시아의 바이칼 호(Lake Baikal)와 근접한 이르크츠크. 시베리아(Siberia) 횡단철도가 아무르 강(Amur River)을 가로지르는 길목에 있는 하바로프스프는 사할린에서 이주한 고려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글학교에 대한 현판식이 현지에서 거행되었지만, 고려인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의 수업은 1년의 시간이 흐른 1992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단지 한글학교 건물의 매입만 있었으며, 교실이나 도서관 등 학교운영의 필수시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보수를 거쳐야 할 만큼 낡은 건물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한글 교재의 미확보, 현지 고려인 교사나 한국에서 파견한 교사 등 여러 문제들이 산재한 상태에서 한글학교의 건립이라는 상징적 차원에서 현판식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한글학교에서의 수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한글학교는 먼저 소련의 광주 한글학교에 파견한 한국인 자원봉사 교사를 모집하였다. 임채완 교수의 추천 등으로 임채희, 허선행, 이강어, 김현숙, 김수진, 김병학, 장원창, 장경미, 한민숙 등 9명의 교사가 선발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몇 개월간에 걸쳐 러시아어 기초 교육을 실시하였다. 1992년 1월부터는 타슈켄트에 임채희 선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한글학교를 파견하였다. 3월에는 허선행, 이강어 그리고 알마니크 지역에는 김현숙, 김수진 선생을 파견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알마티에는 장원창, 장경미, 우스토베에는 김병학, 이르크츠크는 한민숙 선생을 보냈으며, 하바로프스프는 현지 고려인 교사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소련 지역에 광주 한글학교의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1991년 10월, 광주일보사와 북한연구학회가 주최하고, 통일원 광주지사 북한관계관이 주관한 "재소한인 한글교육 현황과 정책"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유스 업무데브(Юсуф Абдуллаев) 교육상 차관, 명일봉 타슈켄트 사범대 교수 등 5명이 발표를 가졌다. 이들의 공동된 주장은 현재 고

49) 『광주일보』, 「재소한인 본사 방문. 한글학교 관련 협의」, 1991. 6. 5, 14면.
50) 『광주일보』, 「본사, 한글학교 설립 모금 캠페인, 타슈켄트 등 6곳서 결심」, 1991. 9. 9, 15면.
라인 사회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열기는 강한 반면에, 교육, 한글교사 등 표준화된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상황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광주전남 지역이 세웠던 한글
학교와 같이 고려인 사회에 대한 한국사회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1) 타슈켄트 광주한글학교와 한겨레한글학교

1991년 8월 10일, '타슈켄트 광주한글학교'가 우즈베키스탄에 설립되어 고려인을 대상으로
문제인 도구어 교육을 시작하게 된 학교 현판식이 거행되었다. 타슈켄트시 울립짜 자보니아
동 35(가, 타슈켄트, 울인, 정부, 이주, 러시아인, 우즈베키스탄에서 70여 명이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글학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한글학교는 단층 개인주택으로 대지
200m², 건평 166m² 규모의 건물로 교실, 도서관, 사무실, 침실 등을 갖추고 있었다. 51) 건물
수리와 교사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한 후, 10일부터 임시적으로 고려인 현지교사가 학생들을
받기로 했다. 재외국민교육원은 광주한글학교의 개원을 축하하면서 러일 및 영·한사전 등 학
술 기자재 200권을 기증하였다. 52)

1992년 한글학교에 교수로 부임한 허선행 선생은 은사인 임채완 교수로부터 "모국어를 못
하는 고려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보라"는 권유를 받고 광주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받은 후,
현지에 파견되었다. 타슈켄트 광주한글학교는 소련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에 주 한국대사관
도 없었던 시절에 세워져 그 뜻을 더했는데. 53) 학교는 통포들의 사랑방이자, 민간 외교의 거
정이 됐기 때문이다. 해외 동포들에게 한글을 보급하기 위해 세워진 최초의 민간 교육시설이
있던 학교의 의의를 높였다. 교장은 고려인 동포인 박 세르게이(Пак Сергей)가 맡았다.

허선행은 타슈켄트 한글학교의 상황에 대해 "빗물이 들어치는 가축 축사처럼 낡고 허름했
다"고 기억하였다. 교실 2개, 교사 3명, 그리고 학생 30명으로 수업을 했으며, 허선행 선생
이 직접 만든 모국어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하였다. 문제는 학교 운영상의 재정 및 열악한 환
경으로 한국인 자원봉사 교사들이 미나하여 허선행 선생으로 2개 학교를 이어갔다. 한국의
한글회원회로부터 매월 100달러를 지원 받아 비용의 대부분을 학교 유지비로 사용했으며, 교
사들은 무보수로 봉사가 되었다. 숙소는 한글학교 건물 안에서 기숙하였다. 54) 이러한 상황에서
말라니크 한겨레한글학교의 건물의 소유자로 고려인 이민들과 이전에 관한 소송이 있었는데
승소한다는 확신이 없어 결국 학교에 전문을 넘겨주었다. 이는 한겨레한글학교의 폐교를 가속
화시킨 요인이었다. 건물주 명의 이전은 타슈켄트 광주한글학교의 경우에도 유사하였다. 허선
행은 "학교의 재정이 어려워 문을 닫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모국 독지가들의 지원으

51) 이 건물의 원소유주는 미국 이민을 가는 유태인이었다. 건물매수 대금으로 12,000달러를 주었지만,
건물 계약서나 대금 영수증은 소유주가 미국으로 떠날 때 주기로 하였으며. 그 대신 변호사 사무실
에서 증권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지난 3월까지 재소로 이 건물의 매입가는 3,000 달러였다.
52)『광주일보』,「소련에 광주한글학교」, 1991. 8. 12, 17면.
53) 우즈베키스탄 주한문화재단은 1993년 12월에 개설되며, 1994년 3월에 설립이 조성되어 부인
하였다.
54) 허선행,『우즈베키스탄 세종학당 허선행 학당장』,『재외동포의 창』 8, 2015, 16-17쪽.
55)『광주일보』,『타슈켄트에 한글 선생님 간다』, 1992. 1, 17, 15면.
로 폐쇄 위기를 넘겼다”고 말하였다. 즉, 고려인으로부터 학교 건물에 대한 명의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소정의 돈을 추가로 지불한 후, 명의를 이전받았다.

타슈켄트 한글학교의 운영에 어려운 상황에서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로 부임한 서건이 대사를 겪었다. 즉, 고려인으로부터 학교 건물에 대한 명의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소정의 돈을 추가로 지불한 후, 명의를 이전받았다. 타슈켄트 한글학교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로 부임한 서건이 대사를 겪었다. 서건이 대사가 학교를 방문하였다. 서건이 대사는 현재의 학교명에 대해 ‘광주’라는 지역적 명칭보다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한글 창시를 기리기 위해, 그리고 예산 지원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학교명의 변경을 권유하였다. 현행 교장은 고심 끝에 1995년 타슈켄트 광주한글학교의 명칭을 ‘타슈켄트 세종한글학교’로 변경하였다. 2011년 2월,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등록했으며, 8월에는 ‘타슈켄트 세종학당’으로 교명을 변경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어 해외 보급을 위해 공모 했으며, 그 결과 ‘세종학당’으로 지정한 75개 기관 중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다. 즉, 정부의 외국인 대상 한국어 공식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원의 파견, 교육 기자재 지원 등을 받으면서 현재는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가장 한국어를 잘 가르치는 학교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2015년 현재, 타슈켄트 세종학당에는 300여 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 수업교재는 서울대학교 부설 재외한국교육원이 만든 한글교재이며, 학당의 규모는 8~10개 학급으로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등 3개 반으로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학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또한 해외 한글학교 벤처마킹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 소련이 폐쇄로 이어진 6개 한글학교 중 유일하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타슈켄트 세종학당은 두 번에 걸친 명칭의 변경으로 광주전남의 지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았던 기금의 본래 취지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것에는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2) 우스토베 광주한글학교와 알마티 고려천산한글학교

카자흐스탄의 두 곳 한글학교는 현판식 이후 한국인 현지교사가 파견되기 이전인 1992년 5월 개교하였다. 광주한글학교의 교장은 윤 세르게이 그레고리위치(Юн Сергей Григориевич)이며, 현지 고려인 채용교사로는 백정자, 전 갈리나(Чон Галина), 김 플로라(Ким Флора) 등 3명으로 현지교사가 임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학생반 4개, 교사반 1개, 성인반 1개 등 총 6개 학급으로 학생 수는 약 100명 정도였다. 1992년 6월, 카자흐스탄에 입국한 이 후로는 김병학 선생이 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총책임자 역할을 맡았다.

수업이 진행되었지만 학교환경은 열악하였다. 학교 건물은 외진데다 울타리도 없어서 밤에는 유목민의 소나 양들이 건물 벽에 기대어 뿔과 몸을 비벼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척박한 환경이었다. 또한 그 당시에는 국가 기반산업이 모두 붕괴되고 있었던 데다 전력도 부족하여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다. 밤중에 세면실을 가려면 손전등을 켜고 길 복도를

59) 카자흐스탄 2곳의 한글학교는 김병학 선생과 2015년 10월 20일 인터뷰하였다.
지나가야 했다. 김병학 선생은 먼저 건물을 수선하였다. 7~8월의 작업을 통해 강의실 3개, 사무실, 교장실, 도서관을 마련했으며, 매주 수, 금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수업하였다. 김병학 선생은 1개의 학생반, 성인반, 교사반을 담당했으며, 나머지 3개의 학급은 현지인 교사가 담당하였다. 그러나 성인반의 경우, 성인이 늦가을까지 일하고 다시 이른 봄부터 농장에 나가 농사일에 전념하는 관계로 성인반은 개설 이후 얼마가지 않아 폐쇄되었다.

학교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자 1992년 9월 5일 개교식을 거행했다. 교장을 비롯한 학교 선생님과 구역교육부장 투레겐 샤리크바예브(Тулеген Шарыкбаев), 한구리 회장, 신계철 우즈베키스탄 교육원장 등이 축사와 함께 한글학교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한글학교의 개교는 고려인들로 하여금 모국어를 살려 앞으로 한민족의 풍습과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으며, 관리자 역할을 맡았던 김병학 선생은 1993년 8월까지 직접 상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60) 김병학,『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사이에서』, 인터북스, 2009, 238-240쪽.
61) 『고려일보』,『우스토베 고려인 반세기 숙망 이뤄져』, 1992. 9. 8, 1면.
완봉사 교사를 마감하고 1994년 2월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따라서 김병학 선생이 카자흐스탄의 두 곳 한글학교를 관리하게 되었다. 문제는 장원창 선생이 귀국후 두 곳의 한글학교 관리문제가 부상하였다. 김병학 선생은 수도 알마티에서 격주에 한 번씩 10시간 걸리는 우스토베 광주한글학교를 찾아가 1995년 8월까지 현지 교사와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2개 학교 관리의 어려움, 운영비용의 문제 등으로 광주한글학교의 운영을 현지 고려인 교장에게 맡겼지만 얼마 안가서 학교는 폐쇄했으며, 고려천산한글학교 또한 1997년 8월, 학교 운영이 중단되었다. 카자흐스탄의 2개 한글학교의 폐쇄는 한글학교의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폐쇄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3) 이르크츠크 고려인한글학교

한국에서 교사가 파견되기 이전까지는 교장으로 사할린 고려인 김순희, 회화를 담당한 윤화자 사할린 고려인, 그리고 러시아인으로 한글 문법을 담당한 유리 미하일로비치 뿌친(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Путин) 이르크츠크 경제대학 학과장 등이 학교 관리 및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한국인이 아닌 관계로 회화 수업에서 발음이 문제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인 파견교사로 한민숙과 조영옥 선생이 1992년 9월 27일, 이르크츠크에 입국하여 한글교사로 재직했으며, 또한 2년 후에는 추가로 유영, 강성국 선생이 자원봉사로 파견되어 한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선생님 관리는 윤화자 선생이 담당하였다.

고려인한글학교의 현황을 보면, 학교 건물은 현지인으로 김순희 교장 명의로 통나무 형태의 단층 주택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이 학교에 파견된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학교 건물을 한 번도 본적이 없었으며, 또한 구입한 건물에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수업은 유리미하일로비치 뿌친 교수의 도움을 받아 1930년에 설립된 동시베리아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경제대학에서 강의실 3개를 무료로 임대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급은 초급, 중급, 고급 반 등 3개반이었으며, 학생 수는 약 40명이었다. 수업은 주중에 2번,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 1번 등 일주일에 반복로 4번씩 하였다. 수업 교재는 고려대, 연세대 한글어학당, 재외국민교육국이 만든 교재의 내용 중 일부를 편집하여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하였다.

처음부터 자원봉사 자격으로 파견된 한민숙과 조영옥 선생은 주간에는 경제대학에서 한글을 가르쳤으며, 야간에는 고려인한글학교에서 수업하였다. 현지 생활비는 경제대학에서 받은 강의료로 충당하였으며, 캐처럼 기간 동안의 비자(Visa) 연장은 경제대학에서 빌려주었다. 특히 한글평화회가 무엇한지,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일일 지원이 없었다. 예전에, 한글학교가 방황하면 한민숙 선생의 경우, 한글로 귀국하여 이르크츠크로 돌아갈 때 학생들의 교재를 위해 소형 복사기와 카트리지(Cartridge)를 자비로 구입하여 들이갔다. 복사기에 학생들에 게 가르칠 교재 편집본을 복사하여 나누어 주고 수업하였다.

한민숙 선생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996년 8월까지 약 4년 정도 한글학교에 근무하였고, 한민숙 선생이 사임한 후 고려인 사업가 김순희 교장이 1996년 말, 갑자기 모스크바로 사업 확장을 이유로 주거지를 옮겨버렸다. 그리고 학교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다. 한글학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의 존재 여부가 학교 폐쇄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매각하였던 고려인한글학교의 건물 매금은 한글평화회에 반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희 교장의 이주는 실질적으로 한글학교를 관리하는 책임자의 공백을 남았으며, 고려인한글학교 또한 자연스럽게 학교 폐쇄로 이어졌다. 학교 폐쇄의 원인은 학교 운영상의 재정적 빈곤과 책임자

62) 이르크츠크 고려인한글학교는 한민숙 선생님과 2015년 12월 1일 인터뷰하였다.
의 부재 때문이었다.

4. 광주 한글학교 운영상의 문제점

고려인들에게 민족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의 계승 차원에서 지역민의 기금을 모아 독립국가 연합에 설립한 6개 한글학교는 24년의 세월이 흐른 2015년 현재, 그 혼적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5개 지역의 한글학교는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폐쇄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광주한글학교는 명칭을 변경하여 2011년부터 세종학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종학당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학당 연혁에도 광주한글학교의 명칭은 사라진 대신에 1992년 10월, 타슈켄트 세종학당 설립으로 표기되어 있다. 설립 주체로는 통일원 광주직할시 북한관, 전라남도의회, 광주일보 등 3개 기관이 등재되어 있다.

광주 한글학교의 운영 중단은 폐교군이 그 원인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현지에 파견한 한국인 교수 모두는 급여가 없는 자원봉사 형태로 보내졌다. 또한 파견 교사 및 고려인 현지 교사 등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영향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비를 들여가며 한글학교의 폐교 전까지 운영하였다. 이 점에서 교사들의 노고는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타슈켄트 광주한글학교를 제외한 5개 한글학교의 중단 원인은 첫째, 재정적 요인이다. 초기에 한글후원회는 한글학교에 매월 100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지원 약속과는 달리 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은 1991년 이후 연간 급여봉 수준에서 간헐적으로 지원되었다. 1994년부터는 한글후원회를 이끌었던 책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후원회 활동이 정지되면서부터 한글학교에 지원은 완전히 끊겨 버렸고, 그 결과 운영의 어려움은 학교 폐쇄로 이어졌다. 이는 한글후원회가 단기간에 걸쳐 한글학교의 설립에 몰두하면서 장기적인 후원체계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로 관계되어 있다. 한글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최소한 기본적인 비용의 조달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글후원회는 일시적인 모금으로 학교 운영 비용만 거두었으며, 학교가 운영될 때 필요한 운영비의 지원을 외주식한 결과, 한글학교의 폐쇄로 나타났다. 예컨대, 고려천산한글학교의 경우, 김병학 선생이 개인적으로 몇 년간 비용을 충당하여 운영했지만 더 이상의 재정적 여력이 미치지 않아 학교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한글학교 또한 교사들이 자비를 들여 학교를 운영하였다.

둘째, 관리의 미흡이다. 소련의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한글학교는 해외에 소재해 있다는 점 그리고 한글후원회의 지원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수업, 교재, 시설 용품 등 학교 운영의 전반을 교사들이 떠맡았다. 문제는 파견된 한국교사나 고려인 교사들의 이직 혹은 이동으로 공백이 생겨도 교사의 추가 파견이 없었다. 알마티 고려천산한글학교의 경우, 교장의 이직으로 교사들이 떠나 학교 운영을 중단하였다. 이르크츠크 고려인한글학교는 교장의 이직으로 학교 운영을 중단하였다. 이 경우, 교장의 이직으로 학교 운영을 중단하였다. 이르크츠크 고려인한글학교는 교장의 이직으로 학교 운영을 중단하였다. 한국과의 연락을 취하기 어려워 통신수단의 미흡, 그리고 비용의 지원이 없었던 관계로 광주의 한글후원회가 한글학교를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구조였다.

셋째, 한글학교 건물의 부재이다. 한글학교를 구입할 당시 학교 건물의 소유주는 외국인이 될 수 없는 관계로 현지 고려인 명의로 학교를 구입하였다. 우스베키스탄의 경우, 온 세르게이 교장 명의로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글후원회와 연락을 통해 현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넘겨주었다. 그러나 알마티 한글학교는 소유자가 1998년 1월, 사망하여 다른 고려인 명의를 빌려 건물주를 변경했지만, 한글학교가 잘 운영되지 않아 중단된 후로 오랫동안 휴폐화된 채 남아 있었다. 건물 명의자가 2007년,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건축하여 현재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병학 선생이 여러 차례 건물 비용을 요구해도 주인은 돈이 없다고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건물을 강탈당하였 다. 알마니크 한겨레한글학교는 건물 명의자에게 어떻게든 제대로 건물을 넘겨받았다. 고려인한글학교는 학교 건물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교장의 모스크바 이주, 그리고 건물의 매도와 함께 학교운영의 어려움이 점차 학교를 폐쇄하였다. 문제가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건물을 빼앗기거나 혹은 합의에 넘겨주었다는 점이다. 한글학교 건물 구입에 상당한 비용이 투자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학교 폐쇄로 인해 6개 학교 가운데 1개 학교만 팔았으며, 다른 1개 학교는 명의 이전, 그리고 4개의 한글학교는 혼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5. 결론

재외동포들의 교육기관 중 하나인 한글학교는 공교육 체계에서 비정규학교에 해당한다. 한글학교는 재외동포들이 처음으로 모국어를 접촉하고 배우는 학교이다. 소련에서 연방체제의 붕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민족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소수민족들의 정체성 또한 강화되었다. 각 공화국은 정치적으로 소련에서 분리하여 독립국가로 탄생했으며, 기존의 러시아어 중심에서 각 민족국가들의 민족어를 공용어로 등장시켰다. 고려인 사회 또한 한글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하였다.

한글을 배우는 고려인들의 강한 열망이 광주전남 지역에 알려졌다. 한글학교를 만들어 고려인을 동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광주일보와 북한연구학회를 중심으로 소련의 6개 지역에 광주 한글학교를 세우기 위한 기금활동의 전개로 1991년 8월과 9월에 학교 건물의 매입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겠다. 1992년부터는 고려인 출신 교사와 현지에 파견한 한국인 교사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5개 한글학교는 폐쇄되었으며, 타슈켄트 광주한글학교는 교명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광주 한글학교에 관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글후원회와 지역민의 한글학교에 대한 성원과 수호의 혼적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광주 한글학교의 폐쇄는 학교운용 비용의 단절과 관리의 부실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학교 설립에만 몰두한 나머지 한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소홀하였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 지원되어야 할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형태로 파견된 교사들이 자비를 들여 학교를 운영하여 나갔지만, 이러한 구조는 한글학교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그 결과 5개 한글학교의 폐쇄로 이어졌다. 한글학교에 대한 비용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한글후원회의 학교관리는 불가능했으며, 6개 한글학교가 모두 CIS 지역에 있는 관계로 한글후원회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요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한글학교의 폐쇄는 자연스럽게 건물의 매각, 합의하에 넘겨주거나 혹은 강탈당했으며, 타슈켄트 광주한글학교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건물을 양수받았다.

첫째, 광주 한글학교의 설립과는 별개로 추진 주체는 학교운용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추가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기금의 모금은 일회성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한글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납부하는 방법, 즉 매월 후원회 계좌로 일정 회비를 납부하는 방법이 모색되었다면, 한글학교의 유지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둘째, 관리의 부실에 따른 문제이다. 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소수만 참여하는 형태였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예전대, 현지 한글학교에서 한국인 파견 교사의 결원이 생겨도 후원회는 추가적으로 교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대다수의 한국인 교사는 낚이는 대학 수업을 맡거나 혹은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의 결원은 다른 선생님의 수업 과부하를 파생시켰다. 통신수단의 불편함과 함께 학교 운영비용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글후원회는 6개 한글학교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는 광주 한글학교의 존재 자체를 고려인들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광주전남에서 성원을 보내주었던 지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삭제시켜 버렸다.

광주 한글학교의 설립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성금을 모아 한민족 동포인 고려인들에게 한글을 배우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한글학교에 최소한의 비용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가 수반되었다면 그 명맥을 유지하여 많은 고려인이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했을 것이다. 광주 한글학교의 설립과 폐교는 유사무종(有始無終)이었다. 한글학교의 설립도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의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광주 한글학교의 설립이 주는 교훈을 거울삼아, 차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후원의 문제; 둘째, 의욕보다 사전 면밀한 검토; 셋째, 학교 운영비용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글학교를 통제하지 못한 결과는 광주 한글학교의 존재 자체를 고려인들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광주전남에서 성원을 보내주었던 지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삭제시켜 버렸다. 1990년대 초반, 광주 한글학교는 소련의 고려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으며, 이후 설립된 한글학교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와 시사점을 향상하고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광주일보』, 「본사, 한글학교 설립 모금 캠페인, 타슈켄트 등 6곳서 결실」, 1991. 9. 9.
『광주일보』, 「소련속의 고려인: 전남대 임재찬 교수 현장답사기(1)」, 1991. 5. 7.
『광주일보』, 「소련속의 고려인: 전남대 임재찬 교수 현장답사기(7)」, 1991. 7. 10.
『광주일보』, 「재소한인 거주지역에 보고어 학교를 세우자」, 1991. 4. 20.
『광주일보』, 「재소한인 본사 방문, 한글학숙 관련 협의」, 1991. 6. 5.
『광주일보』, 「타슈켄트에 한글 선생님 간다」, 1992. 1. 17.
『동아일보』, 「차별 이겨낸 카레이스키, 유라시아 협력의 주역으로」, 2015. 8. 10.
한정숙, 「러시아 역사 속의 영토파창과 민족문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goldbuy&logNo=140014546963(검색일: 2015.11.10).

2. 논지
강성혜, 「재미교포 성인 학습자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분석연구」, 「한국어교육」 13, 한국어교육학회, 2002.
고가영, 「우랄지역 원로 고려인들의 생애사 연구」, 「역사문화연구」 30, 한국외국어대역사문화연구소, 2008.
고재남, 「독립국가내 고려인 사회에 대한 연구」, 외교안보연구원, 1993.
김경근 외, 「재외한인 민족교육의 실태」, 집문당, 2005.
김병학,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사이에서」, 인터북스, 2009.
김인숙, 「러시아 한국어 교육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사찰원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36, 개신어문학회, 2012.
김재욱 외, 「재외한글학교 교재분석」,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2014.
김중섭,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 47, 한국이중언어학회, 2011.
김호준,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주류성, 2013.
박소연,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보급 현황과 발전 방안」, 「유라시아교육현장연구」 6-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2.
외교부. 『2015 재외동포현황』, 2015.
윤인진. 「 재외동포학회의 변화와 미래 한국어 교육방향」,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회, 2009.
이상근. 「리시아·중앙아시아 이주한인의 역사」, 국학자료원, 2010.
이장주. 「카메스카」, 신인, 2014.
임영상·김상철. 「중앙아시아 3, 4세대 고려인의 의식과 생활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편,『재외동포연회』, 재외동포재단, 2003.
임제완 외.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기역과 캄코드」, 북코리아, 2014.
임제완·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울 아카데미, 2006.
장윤수.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문화 네트워크」, 북코리아, 2010.
재외동포재단. 「CIS지역과 중국 동포사회 실태조사 및 한글학교 교육현황 조사 결과보고서」, 재외동포재단, 2009.
정경택. 「중앙아시아 6개국의 언어 정책과 러시아 연방의 대응」, 엄구호 외,『중앙아시아 정치사회 역사문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정현근. 「제외동포 한국어교육을 위한 디아스포라 소설 활용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조현용 외.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언어 환경과 한국어교육 문제 연구」,『한국어교육』 23-1, 한국어교육학회, 2012.
허선행. 「우즈베키스탄 세종학당 허선행 학당장」,『재외동포의 창』, 8, 2015.
허성태·임영언.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세계의 한민족」, 북코리아, 2014.
허승철. 「구조화 지역 한인의 언어 동화와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재외한인연구』 6, 재외한인학회, 1996.
#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 조사 연구

김혜련(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table>
<thead>
<tr>
<th>목</th>
<th>차</th>
</tr>
</thead>
<tbody>
<tr>
<td>I. 서론</td>
<td>I. 서론</td>
</tr>
<tr>
<td>II. 이론</td>
<td>II.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 분석</td>
</tr>
<tr>
<td>III.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 형성 요인: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화</td>
<td>IV. 민족정체성 형성 요인: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화</td>
</tr>
<tr>
<td>V. 결론</td>
<td>V. 결론</td>
</tr>
</tbody>
</table>

## I. 서론

1. 문제제기

일본 법무성 출입국관리국(日本法務省入国管理局)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6월 기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359,461명이며, 그 중 중국인이 721,097명에 이르러 전체 외국인의 30.6%를 차지한다.1) 중국계 이주민은 일본에서 정착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외국인 집단이며, 여전히 모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와 이민 취득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한 화인으로 구분된다. 그들은 모국을 떠나 일본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화인디아스포라2)이다.

화인디아스포라의 일본 이주는 진한(秦汉)시기부터 그 역사적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나, 대규모 이주는 189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100여 년이라는 역사를 유지해왔다. 화인디아스포라는 주로 일본의 도쿄(東京), 요코하마(橫濱), 오사카(大阪), 고베(神戶), 나가사키(長崎) 등 도시 지역에 정착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민족집거지(ethnic enclaves)를 형성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3대 자이아타운으로 알려져 있는 요코하마 주가이(中华街), 고베 난킨마치(南京町), 나가사키 신치주가이(新地中华街)는 화인디아스포라가 모국에 대한 정신적인 기억과 신화, 그리고 모국에 대한 상징과 기표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이주민 공간이다. 더불어 요코하마 주가이와 고베 난킨마치는 연간 약 수백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차이나타운으로 성장한 유명 관광지이기도 하다. 단일민족국가 일본에 정착하고 있는 화인디아스포라는 일본사회에 완전히 동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만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화교학교를 설립해 모국어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으며, 화교단체를 구성해 민족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민족체를 통해 모국에 대한 향수(nostalgia)를 표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는 초국가적 활동을 영위한 이주민 집단으로서, 모국에 대한 '집합적

2)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이주민은 화교(华侨), 화인(华人), 화예(华裔)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화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또한 중국(또는 대만)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주민을 가리키고, '화인'은 중국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을 가리킨다. 또한 '화예'는 거주국에 정착한 중국 이주민의 후예를 가리킨다. 이 연구는 일본에 정착하고 있는 화교와 화인을 총괄하여 화인디아스포라로 지칭하고자 한다.
기억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국과의 연대를 유지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디아스 포라가 모국을 떠나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국에 대한 기억과 연대는 쉽게 단절되지 않는다. 그들은 모국문화를 보존하고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일본으로 이주한 화인디아스포라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오 랐 현지적응 과정을 거쳐 정착 일본 주류사회로 진출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여, 일본에 정착하고 있는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 실태와 이러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 인을 화인디아스포라 사회 내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일본에 정착하고 있는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과 모국과의 연계, 나아가 이 르한 민족정체성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내용은 주로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 모국어 · 모국문화 보 존실태, 모국과의 연계 등으로 구성되었다.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 연 구는 2015년 2월 2일부터 4월 25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주차이나타운과 고베 난킨마치 차이나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화인디아스포라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13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무응답 하였거나 설문문항에 불성실하게 기입된 설문지 21부를 제외한 113부만을 실제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제표-1과 같다.

<table>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변도</th>
<th>비율(%)</th>
<th>구분</th>
<th>내용</th>
<th>변도</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성별</td>
<td>남</td>
<td>50</td>
<td>44.2</td>
<td>혼인</td>
<td>기혼</td>
<td>68</td>
<td>60.2</td>
</tr>
<tr>
<td></td>
<td>여</td>
<td>63</td>
<td>55.8</td>
<td>미혼</td>
<td>45</td>
<td>39.8</td>
<td></td>
</tr>
<tr>
<td>직업</td>
<td>전문직</td>
<td>19</td>
<td>16.8</td>
<td>1세대</td>
<td>17</td>
<td>15.0</td>
<td></td>
</tr>
<tr>
<td></td>
<td>자영업</td>
<td>23</td>
<td>20.4</td>
<td>2세대</td>
<td>33</td>
<td>29.2</td>
<td></td>
</tr>
<tr>
<td></td>
<td>공무원</td>
<td>2</td>
<td>1.8</td>
<td>3세대</td>
<td>37</td>
<td>32.7</td>
<td></td>
</tr>
<tr>
<td></td>
<td>사무직(회사원)</td>
<td>23</td>
<td>20.4</td>
<td>4세대</td>
<td>2</td>
<td>1.8</td>
<td></td>
</tr>
<tr>
<td></td>
<td>서비스</td>
<td>5</td>
<td>4.4</td>
<td>기타</td>
<td>11</td>
<td>9.7</td>
<td></td>
</tr>
<tr>
<td></td>
<td>생산직</td>
<td>1</td>
<td>0.9</td>
<td>일본</td>
<td>43</td>
<td>38.1</td>
<td></td>
</tr>
<tr>
<td></td>
<td>가정주부</td>
<td>11</td>
<td>9.7</td>
<td>중국</td>
<td>47</td>
<td>41.6</td>
<td></td>
</tr>
<tr>
<td></td>
<td>학생</td>
<td>2</td>
<td>1.8</td>
<td>대만</td>
<td>22</td>
<td>19.5</td>
<td></td>
</tr>
<tr>
<td></td>
<td>기타</td>
<td>18</td>
<td>16.0</td>
<td>기타</td>
<td>1</td>
<td>0.9</td>
<td></td>
</tr>
<tr>
<td>연령</td>
<td>10대(10~19세)</td>
<td>2</td>
<td>1.8</td>
<td>초등학교 졸업</td>
<td>1</td>
<td>0.9</td>
<td></td>
</tr>
<tr>
<td></td>
<td>20대(20~29세)</td>
<td>15</td>
<td>13.3</td>
<td>중학교 졸업</td>
<td>3</td>
<td>2.7</td>
<td></td>
</tr>
<tr>
<td></td>
<td>30대(30~39세)</td>
<td>17</td>
<td>15.0</td>
<td>고등학교 졸업</td>
<td>30</td>
<td>26.5</td>
<td></td>
</tr>
<tr>
<td></td>
<td>40대(40~49세)</td>
<td>37</td>
<td>32.7</td>
<td>전문대 졸업</td>
<td>17</td>
<td>15.0</td>
<td></td>
</tr>
<tr>
<td></td>
<td>50대(50~59세)</td>
<td>19</td>
<td>16.8</td>
<td>대학 졸업</td>
<td>46</td>
<td>40.7</td>
<td></td>
</tr>
<tr>
<td></td>
<td>60대(60~69세)</td>
<td>15</td>
<td>13.3</td>
<td>대학원 졸업</td>
<td>11</td>
<td>9.7</td>
<td></td>
</tr>
<tr>
<td></td>
<td>70대(70~79세)</td>
<td>8</td>
<td>7.0</td>
<td>무학</td>
<td>5</td>
<td>4.4</td>
<td></td>
</tr>
<tr>
<td>합계</td>
<td>113(10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다음에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과 모국과의 연계를 사회적 구조 및 각 개인의 살
의 맥락 모두에서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요코하마 주카가이와 고베 난긴마치 차이나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해 진행하였다. 각 면접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진행하였으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어로 질문을 이어갔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 도표와 같다.

<table>
<thead>
<tr>
<th>사례</th>
<th>참여자</th>
<th>국적</th>
<th>연령</th>
<th>거주지</th>
<th>이민세대</th>
<th>소속</th>
</tr>
</thead>
<tbody>
<tr>
<td>사례 1</td>
<td>장 오뤄이(張偉)</td>
<td>일본</td>
<td>50대</td>
<td>요코하마</td>
<td>이민 15세대</td>
<td>요코하마화교협회</td>
</tr>
<tr>
<td>사례 2</td>
<td>스 오펑(施鵬)</td>
<td>中華民國</td>
<td>60대</td>
<td>요코하마</td>
<td>이민 2세대</td>
<td>요코하마화교협회</td>
</tr>
<tr>
<td>사례 3</td>
<td>청 오궈(陳國)</td>
<td>中華民國</td>
<td>60대</td>
<td>요코하마</td>
<td>이민 2세대</td>
<td>요코하마중화학원</td>
</tr>
<tr>
<td>사례 4</td>
<td>천 오쥔(陳堅)</td>
<td>'中華民國'</td>
<td>30대</td>
<td>요코하마</td>
<td>이민 2세대</td>
<td>요코하마중화학원</td>
</tr>
<tr>
<td>사례 5</td>
<td>천 오시(陳聖)</td>
<td>일본</td>
<td>40대</td>
<td>도쿄</td>
<td>이민 2세대</td>
<td>와세다대학교</td>
</tr>
<tr>
<td>사례 6</td>
<td>리 오리(李麗)</td>
<td>中國</td>
<td>60대</td>
<td>고베</td>
<td>이민 4세대</td>
<td>정화가계 운영</td>
</tr>
<tr>
<td>사례 7</td>
<td>석 오즈(石茲)</td>
<td>'中華民國'</td>
<td>40대</td>
<td>고베</td>
<td>이민 3세대</td>
<td>고베 중화회관</td>
</tr>
<tr>
<td>사례 8</td>
<td>펑 오미오(冯美彪)</td>
<td>中國</td>
<td>40대</td>
<td>고베</td>
<td>이민 2세대</td>
<td>고베 중화회관</td>
</tr>
<tr>
<td>사례 9</td>
<td>습 오마오(許馬炎)</td>
<td>中國</td>
<td>60대</td>
<td>고베</td>
<td>이민 2세대</td>
<td>고베 복건회관</td>
</tr>
<tr>
<td>사례 10</td>
<td>습 오(石)</td>
<td>中國</td>
<td>30대</td>
<td>고베</td>
<td>이민 3세대</td>
<td>고베화교훈회</td>
</tr>
</tbody>
</table>

<표-2> 심층면접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II. 이론적 논의

일본에 정착하고 있는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과 모국과의 연계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및 모국연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디아스포라의 '집합적 기억'과 모국신화,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 검토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산재해 있는 4,500여만 명의 화교·화인은 가장 큰 규모의 디아스포라집단이다. 초국적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주의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막강한 경제파워와 초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화인디아스포라가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국내외 학자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교·화인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동남아에 정착하고 있는 화인디아스포라에

일본과 중국 국내에서는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일본 학계의 경우, 여전히 차이나타운에 주목하여 민족집거지에서 형성된 그들만의 공동체, 화인디아스포라의 현지적응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왕워이(王維)와 장위링(张玉玲)의 저서이다. 왕워이(2003)는 일본 차이나타운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와 제사 등에 직접 참여관찰함으로써 차이나타운의 운영원리와 화교사회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장위링(2008)은 화교의 문화 창출에 주목하여 화교·화인의 문화적 특성과 다중상태성을 분석함으로써 화교·화인의 일본사회 정착 실태와 차이나타운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일본 정착 화인디아스포라에 대한 한국 국내 연구는 차이나타운 소개에 집중되었을 뿐, 심층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과 중국 국내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화인디아스포라의 이주 역사, 현지적응 실태를 연구하고 있으나, 민족정체성에 대한 실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나아가 이러한 정체성을 조성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디아스포라의 '집합적 기억'과 민족정체성

스토커(Stalker)가 지적했듯이, 지구상의 그 어떤 민족도 한 지리적 공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주를 선택하게 된다. 국제이주가 활성화됨에 따라 민족본반 혹은 민족이산이라는 의미가 널리 쓰이고 있는 디아스포라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최근에는 국제이주, 이주노동자, 민족정체성, 문화공동체, 문화변용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사프란(Safran)은 디아스포라의 특징을 여섯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즉, 선조가 원거주지로

---

3) 김혜련(2015), "말레이시아 화인 디아스포라의 모국관계 연구", 『민족연구』 제61호, pp.84-85.
부터 둘 또는 그 이상의 외국으로 분산된 이산성, 원래의 모국 망에 대한 집합적 기억. 또한 거주국에서 완전히 수용되지 못하는 고립감과 소외감, 궁극적으로 모국으로 돌아갈라는 귀환 의식. 모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힘을 아끼지하는 집단적 헌신 정신. 그리고 모국과의 관계 에서 연대를 중요시하는 것이다.4) 다시 말해, 다이아스포라는 초국가적 활동을 영위한 이주민 집단으로서,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국과의 연대를 유지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이아스포라도 모국을 떠나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국에 대한 기억과 연대는 쉽게 단절되지 않는다. 모국에 대한 ‘집합적 기억’은 자신 또는 선조의 고향으로부터 파생된 실리적 유대이다.5) 이러한 유대로 인해 다이아스포라는 모 국의 연대를 습득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그들만의 민족정체성을 형성한다.

필립 방콕(Philip Babcock)에 의하면 정체성이란 변화의 상이성으로부터 구별되는 동일성 이며, 다양한 인류들 속에 있는 본질적이거나 포괄적인 성격의 동일성이고, 인성과 단일성과 연속성이다. 정체성이란 용어는 동일성, 연속성, 소속감, 일체감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다.6) 즉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존재를 주변환경의 연관 속에서 규정하고 설명하는 용어이다.

민족정체성은 특정 민족이 가지는 고유특성이이나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소속의식을 지칭한 다.7) 민족정체성은 민족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객관적 특성과 민족적 차원에서 자기 를 누구로 인식하는가를 반영하는 주관적 측면이 포함된다. 여기서 객관적 민족정체성은 민족 집단에 특유한 문화적 특성, 예컨대 언어, 종교, 생활방식과 민족의 역사적 유래 등 객관적 지표들로 구성된다. 주관적 민족정체성은 개개인들의 소속의식 즉 민족의식으로 나타난다. 문화적 고유 특성을 보전하고 있는지는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문화에 이미 동화 되었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아울러 소속의식에서의 민족정체성은 민족적 공동운영의식 이나 사상의 실리적 토대가 된다.8)

다이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우선, 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 성은 디아스포라 집단의 내부적인 상황과 관련된다. 디아스포라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 정한 규모의 사회 구성원이 존재해야 하며, 그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국어와 전 통문화를 계승하는 의지와 민족의식이 필요하다. 디아스포라 집단 내부 상황은 민족 언어,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하려는 노력이 그들의 민족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 다음, 다이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은 거주국의 민족 정책 및 거주국 주류사회 구성원의 이주민 인식과 연관이 있다. 거주국 입장에서 디아스포라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고, 거주국의 동화가 쉽지 않은 점은 충돌시에 대한 의지를 야기한다. 이는 거주국의 다이아스포라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주요취용사용된다. 반면 다이아스포라는 거주국의 간호 노동의 공급자이며, 모국과 거주국 간 정치적 영향력의 수단이자 중개자이다. 특히 다이아스포라와 모국의 관계는 거주국의 외교정책에 크게 의존한다. 다이아스포라 공동체는 모국과 연계되길 원하지만, 거주국 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용이히 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주국은 국익으로부터 출발해 동화, 차별배제 혹은 수용적인 이주민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책은 다이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불어 거주국 주류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도 다이

5) 강혜연(2015), p.84.
7) 정영훈. 2010, “민족정체성, 그리고 한민족의 민족정체성”, `민족학연구` 9권 1호, p.3.
8) 위의 논문, pp.3-4.
스포라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심할수록 그들의 민족정체성은 더욱 강하게 표출된다. 다른 한편으로, 거주국은 정치적 목적으 로 디아스포라를 활용한다. 거주국은 디아스포라의 모국 방문을 통한 정체성 형성과 거주국과 모국 간의 관계 유지를 지지한다. 이때 디아스포라 정체성은 모국이 디아스포라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에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국제환경의 변화도 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 성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시대 정치-경제적 시스템의 변화와 더불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도 변화한다. 예컨대 중국 대륙과 대만의 양안 관계, 즉 중국의 현실적 분단관계는 일본 화인디 아스포라들의 민족정체성을 더욱 복잡한 관계에 처하도록 한다.

3. 분석틀

상술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이 연구는 화인디아스포라가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능하기 위해 그들의 모국어, 전통문화 보존정도를 파악하고, 더불어 그들의 공동체소속감 즉 민족의식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은 디아스포라집단의 내부요인, 거주국과 모국의 이주민 정책, 국제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디아스포라 집단 내부 요인에 주목하여 일본 화인디 아스포라들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일본 화인디아스포라 민족정체성 분석틀

Ⅲ.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 분석

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은 외형적 문화 특성을 의미하는 객관적 요소와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의식을 강조하는 주관적 요소로 구분된다. 다음은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의 모국어 구사

능력, 전통문화 보존 실태, 민족의식 강도 등을 통해 그들의 민족정체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모국어

국제이주를 통해 거주국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한 디아스포라집단에게 있어서 언어능력과 같은 의사소통 기술은 거주국 사회로의 적응을 위한 필수소구이며, 동시에 이주민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 모국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화인디아스포라 특히 차이나타운 출신 화인디아스포라는 중국어를 능통하고 구사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중국어를 빈도 높게 사용하고 있다.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의 중국어 수준을 조사한 결과, <표-3>에서 나타나듯이 19.5%(22명)가 "조금 잘함", 31.0%(35명)가 "매우 잘함"이라고 응답하였고, 1.8%(2명)가 "매우 못함", 17.7%(20명)가 "조금 못함"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화인이 전체 30.1%(34명)이다. 즉, 중국어를 "잘하는("조금 잘함"과 "매우 잘함" 포함)" 화인디아스포라 비율(50.5%)이 "못하는("조금 못함"과 "매우 못함" 포함)" 비율(19.5%)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들어 화인디아스포라가 일상생활에서 중국어를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중국어 글쓰기 능력, 가족과의 대화에서 중국어 사용빈도 등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표-4>에서도 나타나듯이, 질문항목 "일상생활에서 중국어를 사용한다"의 평균값은 3.38, "중국어로 글을 쓸 수 있다"의 평균값은 3.51, "가족과 대화에서 중국어를 사용한다"의 평균값은 3.11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화인디아스포라가 중국어를 습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국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표-3>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의 중국어 수준

<table>
<thead>
<tr>
<th>질문항목</th>
<th>매우 못함</th>
<th>조금 못함</th>
<th>보통</th>
<th>조금 잘함</th>
<th>매우 잘함</th>
<th>전체</th>
</tr>
</thead>
<tbody>
<tr>
<td>빈도(명)</td>
<td>2</td>
<td>20</td>
<td>34</td>
<td>22</td>
<td>35</td>
<td>113</td>
</tr>
<tr>
<td>비율(%)</td>
<td>1.8</td>
<td>17.7</td>
<td>30.1</td>
<td>19.5</td>
<td>31.0</td>
<td>100</td>
</tr>
</tbody>
</table>

화인디아스포라의 이러한 모국어 구사능력은 심층면접에서도 잘 나타난다. 화인디아스포라는 화교학교에서 모국어를 습득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의도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례 10: 저는 중학교까지 고베중화동문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잘하구요. 집에서도 부모님과 중국어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베이징에 가서 1년동안 언어연수도 받았어요. (사례 10, 스○).
2. 전통문화

디아스포라가 현지 거주국에서 어느 정도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중요한 인식이다. 다음은 단일민족국가 일본에서 화인디아스포라가 그 들만의 전통문화를 어느 정도로 계승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그들의 모국문화 관심도, 전통명절 유지 여부, 중국 전통음식 선호도 등을 조사하였다.


|표-5| 중국어 전통문화 질문항목의 평균 및 표준편차

<table>
<thead>
<tr>
<th>질문항목</th>
<th>평균</th>
<th>표준편차</th>
<th>빈도</th>
</tr>
</thead>
<tbody>
<tr>
<td>나는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td>
<td>3.64</td>
<td>.912</td>
<td>111</td>
</tr>
<tr>
<td>나는 중국 전통명절(추석, 춘절, 단오)을 지키고 있다.</td>
<td>3.22</td>
<td>1.124</td>
<td>113</td>
</tr>
<tr>
<td>나는 중국의 혼인 전통 풍습을 지키고 있다.</td>
<td>3.03</td>
<td>1.174</td>
<td>112</td>
</tr>
<tr>
<td>나는 중국의 전통음식을 자주 먹는다.</td>
<td>3.54</td>
<td>1.078</td>
<td>113</td>
</tr>
<tr>
<td>나는 화교-화인의 전통 행사에 참여한다.</td>
<td>3.51</td>
<td>1.001</td>
<td>113</td>
</tr>
<tr>
<td>나는 화교-화인의 전통과 문화가 보존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td>
<td>3.82</td>
<td>.899</td>
<td>113</td>
</tr>
</tbody>
</table>

일본 화인디아스포라가 전통명절을 지키고, 모국 문화를 계승하는 의지와 심층면접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들은 오랜 현지적응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춘절(春節), 추석(中秋)과 같은 전통명절을 지키고 있으며, 모국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 10: 저는 이번 3세인데 아직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교학교를 나와서 학교총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집에서는 아직 명절에 제사를 지냅니다(사례 10, 스○).

사례 8: 사자춤이나 전통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우리가 중국인의 후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죠. 저희 아들도 지금 화교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사자춤을 배우고 있어요. 대를 이어가는 있어요(사례 8, 린○).

3. 민족의식

국가의 장벽이 무너지고 초국적 행위자의 활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행위자들의 상호 연관성도 강화되고 있다. 디아스포라는 자신들이 정착한 거주국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모국과의 연결을 유지함으로써 두 국가 모두를 포함하는 초국가적 삶을 살게 된다. 모국과의 연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민족정체성이다. 더불어 민족의식은 다이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을 반영하는 주관적 요소이다. 민족소속감, 민족자긍심이 강하게 표출될수록 민족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그들의 민족지식, 소속감, 학교단체 참여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질문사항 "화교·화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의 평균값은 3.89, "화교·화인에 친근감을 느낀다"의 평균값은 4.04로 높게 나타났으며, "화교·화인들에게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의 평균값은 3.51, "화교·화인의 역사, 전통, 관습 등을 알려고 노력한다"의 평균값은 3.16, "화교·화인 단체에 적극 참여한다"의 평균값은 3.45, "주변 사람들에게 화교·화인 역사와 문화를 자주 이야기한다"의 평균값이 3.10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인디아스포라가 비록 오랜 이주역사를 거쳐 일본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나, 여전히 강한 민족 소속의식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table>
<thead>
<tr>
<th>질문항목</th>
<th>평균</th>
<th>표준편차</th>
<th>빈도</th>
</tr>
</thead>
<tbody>
<tr>
<td>나는 화교·화인 후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td>
<td>3.89</td>
<td>1.021</td>
<td>113</td>
</tr>
<tr>
<td>나는 화교·화인에 친근감을 느낀다.</td>
<td>4.04</td>
<td>.925</td>
<td>113</td>
</tr>
<tr>
<td>나는 화교·화인에게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td>
<td>3.51</td>
<td>1.010</td>
<td>113</td>
</tr>
<tr>
<td>나는 화교·화인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다.</td>
<td>3.16</td>
<td>1.066</td>
<td>111</td>
</tr>
<tr>
<td>나는 화교·화인 단체(화교협회, 동향회 등)에 적극 참여한다.</td>
<td>3.45</td>
<td>1.118</td>
<td>113</td>
</tr>
<tr>
<td>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교·화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td>
<td>3.10</td>
<td>1.052</td>
<td>113</td>
</tr>
</tbody>
</table>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의 모국어 구사능력 및 사용빈도, 전통문화 선호도, 민족의식 등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즉, 화인디아스포라는 일본사회에 완전히 동화된 것이 아니라, 강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능동하게 중국어를 구사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화인디아스포라는 일상생활에서도 모국어를 빈도 높게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음식을 선호하고, 전통명절을 유지하는 등 모국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있다.

Ⅳ. 민족정체성 형성 요인: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화

100여 년 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화인디아스포라는 오랜 현지사회 적응과정을 거쳐 점차 일본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나, 여전히 강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은 거주국의 아주민 정책, 국제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전히 화인디아스포라 내부 집단의 노력이다. 다음은 화인디아스포라의
라 민족정체성의 형성 원인을 민족교육, 문화축제, 화교단체로부터 찾아보고자 한다.

1. 민족교육의 장 - 화교학교

화인디아스포라들이 단일민족국가 일본에서 민족체성을 유지하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화인디아스포라의 문화 계승자를 육성하는 민족교육의 장 - 화교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화교학교는 전 세계 화교사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 것은 중국계 이주민의 근대 이주역사에서 최초의 화교학교가 일본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는 도쿄중학교(東京中華學校), 요코하마중화학원(橫濱中華學院), 요코하마야마테중학교(橫濱山手中華學校), 오사카중학교(大阪中華學校), 고베중화동문학교(神戶中華同文學校) 총 5개 화교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table>
<thead>
<tr>
<th>학교명칭</th>
<th>위치</th>
<th>학제</th>
<th>설립시간</th>
</tr>
</thead>
<tbody>
<tr>
<td>도쿄중학교 (東京中華學校)</td>
<td>도쿄 (東京都千代田區 5-14)</td>
<td>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td>
<td>1929년</td>
</tr>
<tr>
<td>요코하마중화학원 (橫濱中華學院)</td>
<td>요코하마 (橫濱市中區山手町 142)</td>
<td>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td>
<td>1898년</td>
</tr>
<tr>
<td>요코하마야마테중학교 (橫濱山手中華學校)</td>
<td>요코하마 (橫濱市中區山手町 43)</td>
<td>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td>
<td>1898년</td>
</tr>
<tr>
<td>오사카중학교 (大阪中華學校)</td>
<td>오사카 (大阪市浪速區敷津東1-8-13)</td>
<td>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td>
<td>1946년</td>
</tr>
<tr>
<td>고베중화동문학교 (神戶中華同文學校)</td>
<td>고베 (神戶市中央區中山手道 6-9)</td>
<td>초등학교, 중학교</td>
<td>1899년</td>
</tr>
</tbody>
</table>

중국 대륙과 대만의 대립으로 인해 일본 화교학교도 대륙계와 대만계로 이분화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출판한 교과서와 중국 간체자(簡體字)를 가르치는 요코하마야마테중학교와 고베중화동문학교가 대륙계이고, 대만 교과서를 기준으로 번체자(繁體字)를 가르치는 도쿄중학교, 요코하마중학원, 오사카중학교가 대만계로 인식되고 있다. 비록 대륙계와 대만계 화교학교의 교육체계가 다르지만, 운영과정에서는 입학학생의 국적 및 출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 화교학교는 입학생의 국적, 출신을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개방된 교육공간이다. 따라서 각 화교학교에는 중국 대륙이나 대만 출신 학생들은 물론, 이미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한 화인과 일본인 학생, 나아가 한국·미국·영국·싱가포르 등 외국국적 출신 학생들도 흔쾌히 있어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10)

---
화교학교는 모국어인 중국어를 가르치고 중국 전통문화를 계승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민족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표-8>과 <표-9>에서도 나타나듯이, 화교학교는 초등학교부터 중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모국의 지리, 역사, 문화 등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화교 · 화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있다. 백여 년의 현지적응 과정을 거쳐 많은 중국계 이주민들은 화교에서 화인으로의 신분 전환을 완성해 일본사회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화교학교의 민족교육으로 인해 현재의 화인디아스포라는 여전히 중국어를 구사하고, 전통명절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화교학교의 민족교육으로 인해 화인디아스포라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양상은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난다. 고베 난킨마치 차이나타운에서 잡화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리○리(사례 6)는 화교 4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통하게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다. 연구자: 화교 4세대인 사례 6의 중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니? 집에서도 전통명절 지내시나요?

사례 6: 중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고베에서 화교학교 다녔고, 차이나타운에서 잡화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리○리(사례 6)는 화교 4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능통하게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다.

다봉여 일본 화교학교는 중국어 교육 외에도 민족악기, 민족무용, 전통명절 체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요코하마중화학원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
해 커리큘럼에 전통문화 교육과정을 편성해 남학생은 사자춤(舞狮), 용춤(舞龙)을 배우고, 여학생은 전통무용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요코하마아마테중학도에서는 학생들의 과외활동으로 사자춤, 중국 무술, 중국 다도(茶艺) 등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이렇듯 화교학교는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전통문화를 계승함으로써 모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교육으로 인해 화교학교 졸업생들은 민족문화를 체회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중국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의 주요한 교육시설로 자리매김한 화교학교는 중국어 및 전통문화 교육을 통해 화교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바팀목일 뿐만 아니라, 일본 화교사회와 중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며, 그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2. 화교축제

민족이산자들에게 있어서 축제는 탈영토화 된 디아스포라 위치에서 갖는 모국 고향에 대한 향수의 표출이다. 축제는 거주국의 문화적 경계를 넘고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공동체적 유의의 형태가 되며, 문화적 경계를 넘어 정착하면서 고달픈 삶의 아픔을 대처하는 민족과 축제는 상상력과 생명력을 지닌 놀이문화로서 제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놀이문화는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온 민속적, 축제적 놀이를 바탕으로 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들만의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사자춤, 전통 무용, 명절 축제 등을 비롯한 축제문화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는 관제탄(關帝誕), 마주탄(媽祖誕), 미식축제(美食節), 국경절(国庆節) 등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축제는 여전히 중국 전통명절인 추석(中秋節)과 춘절(春節)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축제이다. 차이나타운 축제에는 중국 전통 음식을 맛 보며, 사자춤·용춤·전통 무용을 선보여 그들만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사회에 중국 문화를 홍보하기도 한다.

일본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제는 바로 음력 구정에 진행되는 춘절축제(春節祭)이다. 약 2주간 진행되는 춘절축제에는 사자춤, 용춤, 전통무용, 전통서커스, 등축제, 포토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민속문화 특색이 높고 이한 이러한 행사는 모국에 대한 화교·화인의 향수를 표출하는 동시에 민족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사례 4: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는 일년에 축제를 여러 번 해요. 춘절, 추석, 관제탄 등 많아요. 축제에는 사자춤도 추고 전통무용 공연도 하고, 전통음식 시식도 하고 그래요. 저는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통문화도 지킬 수 있고, 관광객도 즐길 수 있어서요(사례 4, 전○원).

3. 화교단체

- 84-
화교단체는 일본 화인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화인디아스포라는 화교단체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강력한 민족 응집력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 화인디아스포라 특히 차이나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화인디아스포라는 하나 이상의 단체에 가입하여 회원으로서 우의를 다지고 정보를 주고받으며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화교단체는 화교·화인의 출진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향회(광동회관, 복건회관 등), 일본중화총상회를 비롯한 경제인 네트워크, 그리고 일본 정착 화교·화인의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화교총회 등 다양한 형식의 단체가 구축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화교단체는 화인디아스포라의 권익을 보장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화교총회(华侨总会)이다. 화교총회는 일본에 정착하고 있는 화교·화인의 유대를 강화하고,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며, 전통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화교단체이다. 화교총회는 화교학교와 마찬가지로 대륙계와 대만계로 이분화 되었다. 비록 화교총회는 대륙계와 대만계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으나, 설립목적은 모두 화교·화인들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오랜 이주역사를 거쳐 화교총회의 회원은 이미 국적에 상관없이 화교총회에서 함께 어울리고 공존하고 있다.

일본 화인디아스포라 사회에서 화교단체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요코하마와 고베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코하마화교총회(横浜华侨总会)와 고베화교총회(神戸华侨总会)를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운영 실态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1946년에 설립된 요코하마화교총회(横浜华侨总会)는 화교·화인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마다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았다. 명절축제를 기획하고, 태극관·전통요리 강습실 등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요코하마화교총회는 화인디아스포라에게 대만 비자 신청 관련 서류, 대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모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사례 2: 저희 화교총회는 해마다 다양한 활동을 개최해요. 춘절축제(春节祭), 쌍십절(双十节) 아주 많아요. 저희 건물 바로 옆이 관제묘인데, 거기서 정기적으로 행사를 해요(사례 2, 스○펑).

연구자: 혹시 대륙계 화교총회와는 교류나 협력을 하나요?
사례 2: 행사할 때 자주 협력해요. 관제탄(关帝诞)이라든가 마주탄(妈祖诞) 행사를 기획할 때 교류 많이 해요. 또 위탁 가깝다 보니까 … 지금은 일본변관이나 외국인도 어울리는데 화교들 사이는 더욱 그렇죠. 어울리야 한다고 생각해요(사례 2, 스○깡).

고베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화교단체 고베화교총회(神戸华侨总会)는 1946년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단체로서, 화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며 민족정체성을 고양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고베화교총회는 화인디아스포라의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민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베중화동문학교와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사례 10: 저희 화교총회는 대륙계이지만, 회원은 국적을 따지지 않아요. 대만공객, 중국공객, 일본국적을 불문하고 체육회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총회는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는데 민족무용 공연도 하고, 태극판도 배워요. 중국문화를
이주의 시대가 도래되고 초국적 이주가 확대됨에 따라 일본사회의 다문화·다인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1990년 일본『출입국관리법』개정이후, 신화교 11)에 해당되는 중국계 이주민의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일본 화인디아스포라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화인디아스포라는 중국과 일본에 '끼어있는' 이주민 집단으로서 현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본 주류사회에 진출하려는 동시에 민족언어를 습득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함으로써 모국과의 연대를 유지하려는 이중적 입장을 나타내게 된다. 모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화인디아스포라는 그들만의 노력을 통해 민족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100여 년 전에 일본으로 유입되어 정착하고 있는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 을 분석하기 위해 요코하마와 고베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 다. 연구결과 화인디아스포라는 능통하게 중국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중국어 를 빈도 높게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그들은 춘절, 추석, 단오 등 전통명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사자춤·전통무용·민족악기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화인디아스포라는 모국어 구사능력과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뚜렷한 민족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그들은 화인디아스포라의 후예로서 민족자긍심을 느끼고 있으며, 민족공동체에 강한 소속감을 표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 화인디아스포라는 현지사회에 완전히 동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만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정체성은 다양한 영향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민족공동체 내부의 노력과 의지이다. 우선, 화인디아스포라는 화교학교를 설립해 차세대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화교학교는 일본 화인디아스포라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벽달목일 뿐만 아니라, 일본 화교사회와 중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자, 민족정체성을 강화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다음, 화인디아스포라는 차이나타운에서 축제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모국에 대한 향수를 표출하는 동시에 화인디아스포라의 민족의식과 민족정체성을 고양시키고 있다. 명절 때마다 개최되는 화교축제는 이미 화인디아스포라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마지막으로 화인디아스포라는 화교협회를 비롯한 단체를 운영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화교단체는 화인디아스포라가 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추진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듯 화인디아스포라는 화교학교, 문화축제, 화교단체를 중심으로 그들만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있다.

11) 일본에 정착하고 있는 화교는 크게 두개의 집단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하나는 백여 년 전에 일본으로 이주해 현재까지 여전히 중국(혹은 '중화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구화교'이고, 다른 하나는 1972년 중일 수교 이후, 특히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이후 새로운 이민물결을 따라 일본으로 이주한 '신화교'이다.
<참고문헌>

김혜련(2015), "일본 화교 화인 현지사회 적응에서 화교학교의 역할", 『평화학연구』 제16권 4호.
김혜련(2015), "말레이시아 화인 디아스포라의 모국관계 연구", 『민족연구』 제61호.
(2007), "한중수교 15주년 기회연재: 일본의 차이나타운들 2- 나가사키 차이나타운, 신지", 『플랫폼』 제5호.
이동현(2009), "일본의 3대 차이나타운 특징과 시사점", 『부산발전포럼』 제115호.
이정남(2008), "동북아의 차이니스 디아스포라와 국가정책: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임채완 외(2014),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집단적 기역과 재영토화", 북코리아.
한성미·임승빈(2009), "소수민족집단체류지역(ethnic enclaves)으로서의 연변거리의 장소성 형성 요인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6권 6호.
(2005), "日本华侨华人二、三代的民族认同管窥--以神户的台湾籍华侨、华人为例", 『世界民族』 2005年第2期.
刘晓民(2005), "近现代日本华侨社会的进展与变化", 『南阳资料译丛』 2005年1期.
(2005), "日本华侨的认同变化", 『南阳资料译丛』 2005年3期.
(2008), "对当前日本华侨学校发展状况的思考", 『暨南大学华文学院学报』 2008年第1期.
任江辉(2010), "日本华侨学校日英韩三语教育研究", 『教育研究』 第444期.
王小荣(2012), "日本中华街的发展演变及其认知模式研究", 『世界建筑』 2012年第7期.
林兼正(2009), "横滨中华街物语", 梓社.
张玉玲(2008), "华侨文化の創出とアイデンティティ", ユニテ.
駒井洋·陈天绮·小林知子(2011), 『アジアのディアスポラ", 明石書店.
リノ・サン著·片柳たかか譯(1995), 『華人の歴史』, みすず書房.